

# 씨앗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순환하는  
사회를 위하여

| 박지은



모심과 살길 연구소



중기과제 보고서  
2012-R-03

# 씨앗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순환하는  
사회를 위하여

모심과살길연구소

# 차례

---

## 들어가며: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나와 우리'에게 고향 1

###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고민하다 4

- 황금보다 비싼 토마토 종자 1g 13~14만원 6
- 다국적 기업이 독점한 종자 값이 500배 오른다면? 7
-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 고추의 대명사 청양고추는 몬산토의 것 8

## I. 종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씨앗을 둘러싼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봄 13

- 생명력 있는 먹거리에 대하여 14
- 토양은 미생물이 살아있는 종자은행 16

### 땅을 일구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문화' 19

- 벼농사 문화 20
- 콩으로부터 비롯한 먹거리 문화 21
- 태초에 존재했던 여성적 지혜 24
- 토지의 신, 곡식의 신을 모시는 농경문화 27

### 내가 먹는 것은 바로 할머니가 먹었던 씨앗 29

- 다시 심을 때 생명력이 보존되는 씨앗 30
- 토착지식을 전수하는 할머니의 지혜 33
- 토종씨앗 보유자가 되살리는 씨앗, 살림, 공동체의 문화 35
- 지역 먹거리의 원조, 토종씨앗 36

### 4천 년을 이어온 농법에 대한 배반 40

- 화학산업이 지배하는 농법 42

## II. 종자를 판매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

### 종자를 공급하는 새로운 주체의 선언 47

- 종자 개발자의 선수교체: 농민에서 기업으로 48
- 인간의 필요를 위한 육종에서 교잡종으로 49
- 가공식품개발을 주도하는 교잡종 옥수수 51

---

##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의 탄생 53

- 종자는 종자개발자의 소유인가 54
- 자연선택의 과정을 건너뛰는 GMO 56
- 인간의 목적을 위한 실험용 생명 58
- 자본의 이동을 주도하는 농식품기업 59
-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를 식량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60
- 농업개선에 실패하고 있는 몬산토에 대한 비판 63

## 통일벼는 왜 사라졌을까 65

- 우리 종자의 현실 67
- 종자를 팔아먹은 사람들, 주권 없는 우리의 종자 68
- 제2의 몬산토를 꿈꾸는 국내기업들 71
- 자본과 기업이 만드는 농업, 우리 밥상은 어디로 가는가 72
- 드러나는 문제들 73

## III.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종자를 되찾는 사람들

### 종자의 권리에 대해 국제사회가 눈을 뜨다 77

- 인간으로 살기 위한 권리선언, 식량주권을 위하여 80
- 씨앗을 나누고 재생산하는 씨앗도서관 84
- 미국, 식량주권을 위한 지역 차원의 자치법규 88
- 쿠바, 농민 참여형 농업개혁과 종자개량의 경험 88
- 인도, 전통 지식으로 특허에 대항하는 노력 91

### 작은 승리 93

- 풍요의 종말을 앞당기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93
- 국내 토종씨앗 보존 운동 95
- 씨앗의 지속가능한 순환을 위하여 100
- 농민, 도시텃밭 농민들이 되살리는 지역사회 101

## 참고문헌 104

## 부록 107



## 들어가며

###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나와 우리’에게 고향

씨앗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모든 먹거리는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격언이 성경에도 등장하듯이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씨앗의 의미는 세계 고유의 언어에서도 그 맥락이 통한다. 산스크리트어 비자(Bija), 일본어 시도(Shido), 중국어 창쯔(Zhangzi), 이탈리아어 세미(Semi), 스페인어 세밀라(Semilla), 프랑스어 시망스(Semence), 독일어 데자트(Der Saat) 등이 씨앗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씨앗은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먹거리 사슬로 가는 최초의 연결이자 마지막이다. 그 나라 주요 곡물의 씨앗을 대표적으로 이르기도 하며, 농사와 관련된 속담, 격언, 신화 속에서도 씨앗은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문화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씨앗이 스스로를 퍼뜨리는 활동은 모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초로써, 새나 동물의 활동에 의해 생명력을 대물림하거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토리는 살아 있을 때 스스로를 살리지만 죽어서는 동물과 곤충들의 먹이가 되어 다른 이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토리를 먹은 동물들의 배설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 생장의 양분이 되거나 강물에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생태계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씨앗은 강력한 생명의 원천으로, 인간의 삶은 이것을 발견하고 응용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먹기 좋은 씨앗을 되심어 먹거리로 삼아왔다. 한편 콩을 많이 심어온 우리나라에는 콩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오는데, 좀 상했어도 씨눈만 다치지 않으면 싹이 잘 트

는 콩을 보며 ‘희망’을 말하고, 장마 때 꼬투리 안에서 싹이 터서 어미 몸통이에 뿌리를 내미는 콩을 보며 ‘생명의 끈질김’을 이야기한다. 또한 바위틈에 마른 콩을 심고 물을 줘서 그 싹의 힘으로 바위를 깎으로써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한다. 씨앗은 이처럼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자연순환의 이치와 더불어 우리 삶의 그물망이자 문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독점, 유전자조작 등으로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 씨앗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씨앗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고 육종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면서 전래의 씨앗을 보관해오던 사람들은 점점 세계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씨앗이 농민들의 수중에 있던 오랜 세월동안 ‘씨앗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이 발효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1년에 이 조약이 육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씨앗에 대한 생명특허를 넘어서 개인이나 기업, 국가기관까지도 씨앗을 등록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농작물의 생물다양성은 생산성을 높이는 몇몇 작물로 인해 급속도로 축소되어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약 1만여 식물종이 먹거리로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먹거리의 약 90%를 고작 120여 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열량의 약 60%를 옥수수, 밀, 쌀, 감자 등 4대 작물에서 얻고 있다.<sup>1)</sup> 또한 1903~83년 사이에 콩은 408종에서 25종으로, 옥수수는 307종에서 12종, 토마토는 408종에서 79종, 오이는 285종에서 16종, 양배추는 544종에서 28종으로 감소

---

1) José Esquinas-Alcázar.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O. August 2002.

하는 등 조사된 66개 농산물 품목의 93%가 지난 80년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sup>2)</sup> 국내의 경우 조, 수수, 귀리, 기장 등 일부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들 수확시기에 맞춰 이동을 해오던 축새, 꼬까참새 등의 개체수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3)</sup>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주체는 바로 씨앗을 심고 거두는 농민이다. 씨앗은 농민의 것이자, 이제는 도시텃밭을 하는 이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대대로 받아쓰던 씨앗을 갈무리해서 심거나 이웃에게 얻어 심기도 하며, 다시 심기를 반복한다. 생명에 대한 끈질긴 ‘집중’과 ‘돌봄’을 통해 인류의 먹거리는 탄생하고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수천 년간 해오던 농민들의 이런 노력과 관행이 지금 법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1995년 이후 27만 5천명의 농민들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인도 같은 나라의 사례를 언제까지 남의 나라 일로만 볼 수 있을까.

씨앗과 농민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세계의 변화는 이것을 먹고사는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시 해온 씨앗 재생산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씨앗 본래의 의미,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본래의 것을 회복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들을 찾아가보려 한다.

---

2) 「내셔널지오그래픽」 2011년 7월호.

3) 정옥식.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충남리포트 제72호. 2012.

#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고민하다

영혼, 살아있는 몸의 존재 목적이 운동의 근원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었던 씨앗을 사고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과 같은 세계를 보편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밥 먹을 때 헤아려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첫째, 그 밥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고 우리 백성의 힘들었음을 헤아려라  
둘째, 그 밥이 부모와 나라가 준 것임을 헤아려라  
셋째, 마음에 행여 탐하고 뽐내지 않는가를 헤아려라  
넷째, 나처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라  
다섯째, 먹을 만한 일을 하고서 먹고 있는가를 헤아려라

- 1809년 빙허각 이씨가 부녀자를 위해 엮은 『규합총서』

먹을 음식을 앞에 두고 가격을 따지기에 앞서 이 밥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밥의 가치는 해당 사회의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서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빵인데, 프랑스에서 빵은 그들의 ‘문화’다. 프랑스 정부는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프

랑스 빵'은 오직 밀가루, 물, 소금으로만 만들어야 하며, 자연발효를 거치거나 이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완성된 반죽에는 일체의 첨가물과 색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냉동의 과정을 거처서도 안 되며, 고유의 반죽 그대로를 구워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sup>4)</sup>

또한 프랑스는 식생활교육의 첫머리에 '우리나라는 왜 빵을 먹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밀이 제일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sup>5)</sup> 각 지역에서 전해지는 음식의 기원을 이해시키면서 자연, 농업,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식생활교육의 주요 내용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왜 쌀을 먹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과연 어떤 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어서 우리 자신과 가장 가까우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 우리의 식생활교육은 과연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을까. 우리 식탁은 빵, 우유, 시리얼, 열대과일 등 이미 상당한 정도로 세계화되어 원래 우리 주식이 무엇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식량자급률은 23%에도 못 미치고,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하루 식사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풍요로운 먹거리를 앞에 두고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갈등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농약, 화학비료, 식품첨가물, GMO 등 먹거리 위험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먹지 마라'라는 금기어를 내세운 식생활교육은 오래된 식습관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습관을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고 가까운 농산물 이용을 권장하는 녹색식생활

---

4) 김한송. "푸드 스토리". 네이버캐스트. 2011.

5)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멘트.

캠페인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농산물 자유무역의 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고, 씨앗으로부터 식탁까지 농식품 기업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먹거리를 자연스러운 선택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과연 ‘영혼과 살아있는 몸’을 위한 음식을 먹고 있을까.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주고 밥을 산다. 먹거리는 언제든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상품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만 민감해 있다. 하지만 먹거리의 자유로운 선택 또한 결국은 상품화된 먹거리들로 채워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황금보다 비싼 토마토 종자 1g 13~14만원

‘황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슬로진은 금맥을 찾아 나선 서부 영화의 개척자들을 유혹하는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똥똥지 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현실이 그러하다. 1g의 금값은 7만 원 선이지만 토마토 종자는 그보다 훨씬 비싼 13~14만 원 선이기 때문에 사실 황금보다 더 비싼 씨앗이란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전량 수입되는 파프리카는 씨앗 한 알에 600원, 장미는 100원, 백합 구근은 500원 정도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를 수출해서 로열티를 벌자고 한다.

그런데 종자산업이 황금보다 비싼 금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로열티를 종자 수출로 과연 벌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종자 가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로열티를 부담하는 주체

는 종자를 사는 농민들이다. ‘골든씨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등의 명목으로 금맥을 찾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가져다 쓰고 있지만 다국적기업들이 이미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자 수출로 인한 이익보다 종자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되었다.

인도에서는 1998년 다국적 기업의 씨앗을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수십만 명이 농사짓는 것을 포기했다. 7루피(150원)에 불과했던 국내 보급종 가격이 3,200루피(80,000원)까지 올라갔던 사례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sup>6)</sup> 종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지 모른다.

### 다국적 기업이 독점한 종자 값이 500배 오른다면?

종자 값이 수백 배 오른다면, 혹은 수백 배를 주고도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배추 3~4포기에서는 30만원어치 종자가 나온다. 이 좋은 시장을 마다할 리 없는 다국적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면 시장에서 파는 대로 사다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앞에 이미 다가온 현실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 한 여성농민은 올해 들어 당근 씨앗이 두 배 이상 올랐으며 ‘돈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는 말을 곧 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씨앗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밥값인들 오르지 않겠는가. 우리가 황금보다 비싼 씨앗을 수출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황금보다 비싼 밥을 먹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황금을 주고도 쌀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은 아이티의 사례가 증명한다.

---

6) 김윤수. “전여농 토종씨앗 워크숍 자료집”. 대전 근로자총합복지회관 2012. 9. 6.

아이티는 1987년 쌀을 수입하기 이전에는 쌀 수요의 3/4을 국내산으로 충족했었지만 이제는 같은 양을 ‘마이애미 쌀’로 먹게 되었다. 2007년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자연재해와 더불어 국제식량가격이 폭등하자 식량 수출국들은 자국의 시장 문을 굳게 닫았고, 돈을 주고도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 아이티 국민들은 연일 시위와 폭동으로 거세게 저항했다.

이제는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심을 수 있는 작물의 종자가 없다면 생존 방법 또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그림〉 30만 원어치 배추 종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 맛의 대명사 청양고추는 문산토의 것

‘기대만발, 무한질주, 마니파, 불세출’ 등의 우리말이 수입 종자의 이

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대만발은 몬산토의 고추종자, 무한질주는 신젠타의 고추종자다. 가히 고품질·다수확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이름들이다. 당연히 우리 종자로 알고 있는 청양고추는 국내 종자회사인 중앙종묘가 개발한 품종으로, 농민들이 육종하는 과정에서 풋고추로 개발된 의미를 기려 경북 청송과 영양 지역의 이름을 따 청양고추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 회사를 인수한 기업의 합병과정을 거쳐 중국 산둥성에서 채종돼 수입되는 몬산토의 종자가 되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지만, 요즘 종자는 원종을 알 수 없이 교잡되어 자연의 속설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작년 초 세계적인 종자업체인 몬산토코리아는 자사가 출시한 '기대만발' 고추에 대해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다수확 품종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우랑고추 씨라고 해서 심었더니 먹거리로서는 가치가 없는 관상용 고추가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듯 신품종은 오랫동안 풍토에 맞게 토착화되어 온 재래종이나 자생종을 일컫는 토종씨앗과 달리 당해에 나타나는 특정 문제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씨앗만 살 수 있게 된다면 신품종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고추를 수확하면 그 중 제일 크고 좋은 것을 먹지 않고 보관했다가 이듬해 종자로 씨왔다. 그러나 현재 농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토종고추는 충북 음성 앓은뱅이 고추, 경북 영양 수비초, 칠성초 정도다. 2008년 원예평론가 임영빈이 전국을 다니며 한국의 채소 재래종을 조사한 결과, 재래종을 초기에 육종하거나 도입한 사람조차 대부분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청주의 한살림 생산자 홍진희 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sup>8)</sup>

7) 임영빈, 『토종을 찾아서: 한국의 채소 재래종』, 한국토종연구회, 2008.

8) “생명농업과 종자문제 연구 기획모임” 2012년 4월 23일.

“유기농사를 짓겠다고 한 지 10년쯤 지나서 갑자기 알게 되었다. 내 씨앗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구나. 호박만 씨앗을 받아서 뿌리고 많은 종류의 씨앗을 사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씨앗을 사게 된 걸까? 내 어릴 적엔 집집마다 씨앗을 매달아 놓는 걸 보고 자랐는데, 깜짝 놀랐다. 그 이후로 가급적 채종할 수 있는 종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중이다. 농민들 삶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종자회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끌려간 것일 수도 있는데, 자성이 필요하다”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나침반 같은 것이 필요하다. 먹는다는 것에는 일상에서의 의지와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는 먹거리에 질문을 던져보자. 이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씨앗으로부터 식탁까지 어떻게 왔는지 따지고 묻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장을 볼 때,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도 농민이 땅심을 이용해 키운 것인지 다국적기업이 파는 씨앗을 식물 공장에서 키운 것인지 묻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의성 마늘, 제주의 콩나물콩과 같이 그 지역의 먹거리는 우리 풍토에서 오랜 세월 적응해 온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씨앗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먹거리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수확하는 농민의 땀방울을 떠올리게 하는 먹거리이며, 여기에는 생산자의 얼굴과 소비자의 신뢰와 서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식-농의 연결은 관계와 가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먹는 소비자는 ‘밥’과 ‘벼’로 그 지역의 생산자와 만나게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지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더 이상 묻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다국적 농식품기업들이 독점하면서 세계의 먹거리가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질 지경이다.

돌맹이를 든 소년이 무장한 거대 장수를 극복할 수 있었던 다윗과 골리

앗의 일화를 떠올려 보자. 콜리앗의 싸움 법칙을 거부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인 돌팔매질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윗이 콜리앗과 다른 세계를 끊임없이 열망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다. 건강한 먹거리와 씨앗의 재생산을 포함해 정당하게 농사지을 권리를 원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위해 생산하고 소비하며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금 시대의 다윗이다. 이제 우리는 콜리앗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I. 종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씨앗을 둘러싼 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봄

“만약, 마실 물에다 똥과 오줌을 섞어 넣는 비싼 기술을 개발하고,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정확할 수 있는 더 비싼 기술을 발명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 웰렐 베리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할 이 세계에서 진정한 의미로 쓰고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우리가 먹은 것이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이 단순한 사실에 주목해 한번 되돌아보자.

쓰레기와 배설물은 자연정화가 가능한 흙으로 돌아갈 때 가장 잘 분해된다고 한다.<sup>9)</sup> 흙을 매개로 살고 있는 생명인 우리에게 그나마 돌아갈 곳이 있으니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십억 년에 걸쳐 지구상에 생명체가 확산된 과정은 실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돌연변이, 유전자 교환, 공생으로 표현되는 모든 생명체에 내재된 창조적 능력에 자연적 도태가 더해 생명의 그물이 확장되고 다양한 생명계가 만들어진다. 한 생물의 배설물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한 줌 흙속에는 500여 종의 미생물이 산다. 흙을 매개로 미생물들과 식물, 식물과 곤충, 곤충과 새가 어우러진 생태계의 한 귀퉁이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활동을 일구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먹거리가 하늘의 새와 땅의 벌레, 그리고 인간 모두를 위

9) F.H. 킹. 박민영 옮김. 『4천년의 농부』. 들녘. 2006. 184쪽.

한 것임을 뜻하는 ‘콩 세 알’이라는 말이 있다. 한 알은 우리가 먹고, 한 알은 날짐승이 먹고, 한 알은 내년 농사를 위해 흙이 먹는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자연과 더불어 먹는 개념으로 나브다나(아홉 알)가 있다. ‘공생’이란 먹거리를 내는 인간, 땅, 하늘의 관계에 대해 인간이 발견한 절묘한 지혜가 아닐 수 없다.

‘일완지식 함천지인(一碗之食 含天地人)’ / 밥 한 그릇에 우주가 있다

동학을 이끌었던 최시형 선생은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이해하면 세상 모든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씨앗이 세월을 더해 열매를 맺기까지 온 우주가 힘을 쏟는다. 태양은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내고, 대지는 가진 것을 양분으로 내놓는다. 여기에 농민들의 노동이 더해진 것이 바로 먹거리다. 이 속에서 ‘먹거리는 하늘, 땅, 사람이 더불어 내는 것’이라는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진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생태계에 적응하며 자연과의 관계를 매개해오던 인간이 생태계의 수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초우성적 개발자로 등장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 초우성적 포식자는 결코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인간은 과연 지속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생명력 있는 먹거리에 대하여

고대시대에 영혼은 생명의 숨결, 즉 ‘생명력’을 의미했다. 산스크리트어 아트만(atman), 그리스어 프시케(psyche), 라틴어 아니마(anima)로 불리는 ‘영혼’은 곧 ‘숨’을 의미한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영혼

이란 곧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먹거리 위협시대에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한 먹거리는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특별한 먹거리로 이해되는 유기농의 의미와 달리 ‘유기’란 본래 토양의 원리에 근거해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의미이며, ‘오가닉(organic)’이란 단지 생명이 있는 것 또는 생명에서 비롯된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유기적’이란 말은 생물체와 같이 조직(組織)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 생명에서 비롯된 먹거리가 비유기적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먹거리들이 활개를 치면서 ‘유기농 먹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상한 세태가 되었다. 본디 유기농 먹거리는 그 자체로 생명력 있는 먹거리, 땅을 일구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가치를 담고 있는 먹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먹거리 체제에서 ‘유기적’이라는 의미는 왜곡되어 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한 주체들은 소규모 가족농들인데도,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소농을 전근대적이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시켰다. 경쟁력에 기반을 둔 대규모 농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갈수록 황폐화되는 땅에서 농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농법이 확산되어 왔다. 그런데 불과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 농가 대다수는 영농비 덕분에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산업화 농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대안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소농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소농들이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기업농에 비해 생산성이 높을 뿐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 차원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sup>10)</sup>

소규모 가족농의 텃밭농사는 오래 전부터 전해오던 전통농업방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혹은 이미 규모화 된 농가의 경우 일부 작물부터 전통농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농업이 경쟁력 있다고 인정받고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쉬운 것이 현실이어서 자기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친환경 농가들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는 결국 자본이 집중된 생산유통 시스템에 가치와 가격 결정을 맡겨두지 않고 다품종 생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농형 생산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있다.

생명력 있는 먹거리란 결국 누가 농사짓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우리 사회가 어떤 먹거리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토양은 미생물이 살아있는 종자은행

*“흙은 처음부터 흙이고 언제나 흙인 것입니다.*

*논밭에서 일어나는 대자연의 영위*

*그 자체인 최초의 흙이 진실로 살아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

*- 가와구치 요시카즈*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토양이 그 자체로 살아있는 종자은행임을 밝힌 바 있다.<sup>11)</sup> 그는 연못 밑바닥의 진흙을 컵에 담아 적당한 습도로 축

---

10) 소농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Altieri, M.A. and C.I. Nicholls. “Agroecology and the search for a truly sustainable agriculture”. UNEP Basic Textbooks for Environmental Training. UNEP-ROLAC, Mexico D.F. 2005. 자료 참조. 소비자 의식에 대해서는 김흥주 외. “먹거리 위협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SSK먹거리지속가능성사업단. 2012. 자료 참조.

축하게 만들고 별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두었다. 그러자 여러 종류의 싹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수는 6개월 동안 537개나 되었다.

토양에는 본래 그 장소에서 살지 않던 식물의 씨앗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씨앗 가운데는 수명이 수십 년인 것부터 백 년이 넘는 것도 적지 않은데, 휴면상태에 있던 씨앗의 일부가 세월이 지나 적절한 환경을 만났을 때 싹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양을 ‘식생의 타임캡슐’ 또는 ‘과거 식생 기념관’이라 부르기도 한다.<sup>12)</sup>

모든 생명체는 산소를 이용해 탄소성분의 유기물 재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탄소를 배출한다. 미생물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서나 살아 움직이고 있다.

‘부식토(humus)’란 낙엽 썩은 것,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이 분해된 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물질을 버린다거나 폐기한다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생명체들이 배출하는 탄소와 에너지를 자연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역할이 곧 흙의 부식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데 퇴비의 역할이 보고되기도 한다.<sup>13)</sup> 오스트리아의 한 농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습 오염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가 금지되었을 때 그의 농작물에서만 세습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이유를 퇴비의 미생물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땅의 미생물이 살아있는 먹거리,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보자.

---

11) 와시타니 이즈미. 김창원 옮김. 『씨앗은 어디에서 왔을까?』. 진선출판사. 2006. 90쪽.

12) 위의 책. 98쪽.

13) 조셉 젠킨스. 이재성 옮김. 『똥 살리기 땅 살리기』. 녹색평론사. 1999. 88쪽.

## 쉬어가기

### 천연물질에 대한 왜곡된 인식, 커피믹스 논란 다시보기

가공식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에서 비롯한 먹거리와 ‘천연물질’이 첨가된 먹거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잃어버렸다. 탄소를 함유한 화합물이라면 그것이 원래의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든 상관없이 ‘천연물질’이라고 사용되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커피믹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커피 브랜드 간에 벌어진 공방의 쟁점은 ‘카제인나트륨이 몸에 좋은가 나쁜가’였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천연유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가공 화합물인 커피믹스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 커피믹스의 원재료를 살펴보면, ‘커피 12.5%, 백설탕, 식물성크림, 식물성경화유지, 카제인나트륨, 인산이칼륨, 유화제’ 등이라고 쓰여 있다. 특정성분에만 주목하면서 논란이 왜곡되었지만, 커피믹스는 이미 다양한 첨가물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이런 커피믹스가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간식이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은 천연물질이 아니라 천연물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각종 첨가물을 개발해왔다. 사탕수수의 단맛보다는 설탕의 단맛에 길들고, 설탕보다 강력한 액상과당을 개발한 역사적 과정이 그렇다. 심지어는 첨가물이 문제시되어도 그 첨가물 대신 다른 첨가물을 넣거나, 첨가물 수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첨가물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다.

문제는 우리 입맛이 이러한 가공된 먹거리의 강한 맛에 익숙해지면서 더욱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방향으로 식품산업이 발달해온 것이다. 먹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머리는 이해하더라도 오래 습관화된 자기 입맛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먹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없이 몇 가지 첨가물을 피하고 유기농 먹거리를 찾는 것만으로 우리의 식탁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 땅을 일구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문화’

‘문화(culture)’란 ‘땅을 일군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전처럼 수렵, 채집 등의 생활로 그때그때 먹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착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넘어선 내일이라는 관념이 가능해졌다. 원래 땅을 경작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어, 인간이 정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신적인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문화의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문화는 자연에서 비롯해서 인간이 만들어 온 양식으로서 구성원들의 생활, 사유, 정보교환 등 그 집단에서부터 습득하여 계승해 온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가격을 통한 상품의 ‘교환’이 있기 전에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살림살이와 더불어 서로 다른 종의 콩을 심는 우리집과 뒷집이 비슷한 양의 종자나 수확물을 나누는 ‘호혜’와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식량을 나누는 ‘재분배’가 삶의 양식으로 존재했었다.

지구상에는 5천여 개의 문화가 존재하며, 30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 먹거리, 치료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님나무와 같은 전통 문화유산은 여전히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대부터 사용되어온 님나무는 토양과 식물, 가축과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님나무 씨앗에서 기름을 짜서 남은 찌꺼기를 가축에게 먹이고, 가축 분뇨를 활용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였다. 님은 화장품이나 치약, 비누, 각종 해독제 및 피임약, 살충제나 약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병이 들거나 공격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들은 풀밭에서 특정 풀을 열심히 뜯어 먹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풀을 알고 있다. 인간도 그것을 관찰하거나 체험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체득해 왔다.

식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나타난다. 기원전 2600년 바빌로니아(Babylonia) 및 수메르(Sumer) 사람들은 식물을 이용하여 주문을 외움으로써 환자를 구하려 했으며, 기원전 2900~1900년 고대 이집트에서는 약학적 목적의 식물채취나 재배가 활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sup>14)</sup> 인도에서는 전통의학서인 आयुर्वेद(아유르베다), 중국에서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통해 식물에 대한 관심이 약학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간들이 흙을 토대로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살림살이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결정해온 것이 곧 문화이다. 어느 나라 문화를 봐도 음식은 나누어 먹는 것이었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이라는 노래처럼,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나눠 왔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에는 저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치르는 의례가 있다. 먹거리는 하늘이 주신 것이며, 수고로운 노동을 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의식이 담겨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며, 못 생명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인간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살림살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철학을 기본으로 한다.

## 벼농사 문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것이 약 1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 무렵부터 세계 각 지역에서는 곡식을 재배하여 식량으로 삼기 시작했다. 최근 충

---

14) 변현단.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약이 되는 잡초음식』. 들녘. 2011.

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출토 볍씨가 약 1만 3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한반도에서 벼농사의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폐가 발생하기 이전에 쌀은 화폐의 대용품인 물품화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시사회에서 씨족 간 재화의 교환은 물물교환이었는데, 신라 소지왕 2년에 물품화폐로서 쌀과 포백(布帛)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쌀이 화폐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sup>15)</sup>

쌀은 주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예컨대, 조상의 영(靈)을 섬기는 가제(家祭)에서 신주단지에 봉납되는 나락이 주로 쌀이었으며, 풍년의 기원, 햇곡에 대한 감사, 자손의 번영과 안녕, 만복을 비는 것의 매체로서 신주단지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 역시 쌀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쌀이 환금작물이라 하여 강제로 전량판매 또는 공출당하고 맥류·조 등의 잡곡을 주식으로 하기도 했다. 1960년 초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 하여 쌀은 고사하고 보리쌀마저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벼농사로부터 비롯된 문화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 콩으로부터 비롯한 먹거리 문화

“콩은 오곡의 하나인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곡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무라면 콩의 힘이 오곡 중의 으뜸인 것이다. 세상에서 잘사는 사람이 적고 못사는 사람이 많으므로 좋은 곡식은 잘사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백성이 얻어먹고 목숨을 잇는 것은 오직 이 콩뿐이다.”

- 이익 『성호사설』

---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콩은 야생 돌콩에서부터 재배되었으며, 만주 부근과 시베리아 아무르(Amur) 강 유역을 원산지로 추정한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여러 종류의 콩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일의 유적을 통해 공통적인 기원으로 파악되는 것이 콩, 팥, 녹두가 대표적이다.<sup>16)</sup> 콩은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기름을 주지 않아도 병충해가 생기지 않아, 대부분 없이 살았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곡식이었다. 그러나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처럼 궁핍한 삶이라 해도 마음까지 가난하지 않았던 삶의 일면을 보여준다.

콩을 다양하게 발효시켜 먹는 우리나라는 장의 종류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장(醬)이란 콩을 주원료로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로 그 종류만 해도 간장을 빼고 난 부산물을 먹는 ‘막된장’, 막된장과 메주 및 염수를 혼합 숙성하거나 메주만으로 담은 된장으로 상온에서 장기 숙성시키는 ‘토장’, 메주로 토장처럼 담되 수분을 좀 많이 하고 햇볕이나 따듯한 곳에서 숙성을 촉진시키는 속성 된장으로 보리나 밀 생산이 많은 남부지방에서 주로 만들어 먹는 ‘막장’ 등 200여 종 이상이며, 청장(淸醬), 즙장(汁醬), 담백장, 청국장, 고추장 같은 일반적인 것과 청태장, 접장, 막장, 시금장(등겨장), 기름장, 비지장 같은 별미장이 있다. 흉년이 들어 콩이 부족할 때는 콩잎, 콩깍지, 느릅나무 열매도 장 담그는데 이용되었다고 한다.<sup>17)</sup>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에도 고구려에서 선장양(善臧釀)을 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장양’은 장 담그기, 술 빚기 등의 발효성 가공 먹거리를 총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동역사 海東繹史》는 《신당서 新唐書》를 인용하여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의 명산물로서 책성(柵城)의 시(豉: 메주)를 들고 있다. 이러한 시에 대하여 《설문해자 說文解

16) 안승모. “두류재배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콩연구회지 19권 2호. 2002. 32 쪽.

17) 『한국세시풍속사전』

字》에서는 ‘배염유숙(配鹽幽菽)’이라 하였다. 숙(菽)이란 콩이고 유(幽)는 어둡다는 뜻이니 어두운 곳에서 발효시킨다는 것이다.<sup>18)</sup> 콩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찍이 온돌의 원형인 갱(坑)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사람들은 이러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8, 9세기경에 장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많다. <동아(東雅)>(1717년)에서는 "고려의 장(醬)인 말장(末醬)이 일본에 와서 그 나라 방언대로 미소라 한다"고 하여 그들은 ‘미소’라고도 부르고, ‘고려장’(高麗醬)이라고도 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전쟁에 대한 대처를 두고 조정이 입장을 모으지 못할 때에도 피난처에서 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을 정도로, 장을 담그는 것은 먹거리 준비의 으뜸으로 여겨졌다.<sup>19)</sup> 국가에서는 장을 관할하는 ‘합장사(合醬使)’가 있고, 가정에서는 장을 책임지는 것이 곧 가장이었다.<sup>20)</sup>

장은 식용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이용되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장은 모든 어육, 채소, 버섯의 독을 지우고 또 열상과 화독을 다스린다. 메주가 식체를 지운다.”라고 소개되는데,<sup>21)</sup> 이를 보면 우리 생활에서 장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 문화가 미래에도 지속가능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통 방식으로 담근 장은 지역마다 다른 맛을 유지해온 비결이었지만 현재 대량생산으로 판매하는 장은 수입되는 일본의 미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전통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에 대한 다수의 특허권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 간장, 된장, 막걸리에 많이 사용하는 ‘아스페르질루스 오리재(Aspergillus oryzae)’는 일본이 특허 등록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 배수원. 『우리 역사를 바꾼 12가지 씨앗 이야기』. 작가정신, 2006. 43쪽.

20) 『한국세시풍속사전』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을 마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sup>22)</sup> 국제적으로 자국의 전통지식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서도 한중일의 전통 지식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향후 토착지식에 대한 해석과 관련 문헌 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태초에 존재했던 여성적 지혜

흥미롭게도 세계적으로 농경문화에서는 대지의 여신을 모셔왔다.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 농경, 곡물, 수확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있고, 로마에서는 곡물의 여신으로 데메테르와 동일시되었던 케레스, 하늘과 땅을 모두 지배한 우주의 여왕으로 인식되었던 수메르의 여신 이난나, 사랑과 전쟁을 관장하는 바벨로니아의 여신 이슈타르, 혼인, 의학, 농업의 신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이시스, 멕시코 아즈텍의 대지의 여신 코아틀리쿠에 등이 있다.<sup>23)</sup>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실체로 추정되는 단군 이전에 시조격인 마고 할머니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온다.<sup>24)</sup>

지상에서 가장 높은 마고성(麻姑城)의 여신인 마고에게 두 딸이 있고 이들에게서 황궁, 백소, 청궁, 흑소씨의 남녀 각 1명씩 8명이 태어났고, 이들이 각각 3남 3녀를 낳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시조이며 몇 대를 지나 자손이 300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인구 증가로 마고성의 식량인 지유(地乳)가 부족해지자 백소씨 일족인 지소씨가 지유 대신 포도를 먹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다. 마고성 안에서 지유만 마실 때는 무한한 수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풀과 과일을 먹게 된 후 천성을 잃고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낀 황궁씨가 마고 앞에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서약하고 사람들을 4파로 나눠 성을 떠난다. 그중 황궁씨는 일행을 이끌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천산주(天

---

22) 『MK뉴스』 2010. 6. 29.

23) 『미술대사전』

24) 『시사용어사전』

山州)로 가서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 된다. 황궁씨의 자손은 유인, 유호, 한인, 한웅, 단군으로 이어진다고 전해진다. 민간에서 구전되어오는 신화에서 마고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고 누워 한 다리는 서해에, 또 한 다리는 동해에 두고 손으로 땅을 훑어 산과 강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창조 의 여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죽령 일대에서 산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다자구 할머니는 지혜와 용기로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떼를 물리치고 마을과 나라를 평안하게 해준 공으로 신격화되었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경상도 풍기군으로 넘어가는 죽령개는 길이 길고도 험하였다. 주요 물자의 유통로인 이곳에는 도둑떼가 들끓어서 행인을 괴롭혔다. 관가에서 군사를 풀어 잡으려 했으나 산의 지리를 잘 아는 도둑들은 험한 산으로 달아나곤 하여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도둑들에게 가산을 모두 빼앗긴 할머니 한 분이 관가에 찾아와서 도둑을 잡겠다며 방법을 말한다. 산속에 김숙이 군졸을 숨겨 놓고 할머니가 산속으로 들어가 아들을 찾으려 간 것처럼 하여 도둑들의 은신처를 알려 주면 와서 잡으라는 것이다. 그대로 하기로 하고 할머니는 산속으로 들어가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닌다.

이를 본 도둑들이 할머니에게 묻자 아들의 호환으로 찾아다닌다고 하자, 오갈 데 없는 할머니에게 밥을 해주며 함께 거주하자고 한다. 좋다고 하며 도둑들이 자기 앓을 때는 할머니는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면서 늘 노래처럼 불렀다.

어느 날 하루는 두목의 생일에 도둑들은 대낮부터 술을 실컷 마시며 놀았다. 한밤이 되자 모두 녹아떨어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머니는 '다자구야 더자구야' 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를 들은 관군이 급히 달려와 도둑을 모두 잡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자구 할머니라 부르고, 할머니가 죽어서 죽령산신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발견되는데 당신화 다자구 할머니(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다자구 할머니 산신당(단양군 단양읍), 다

자구 털자구(경기도 양평군), 삼천병마골 피흘고개(경기도 시흥시), 부산성(경북 경주시), 조수만 장군과 다자구 털자구 계략(대구 북구), 마고할매 전설(경북 영주시) 등이다.<sup>25)</sup>

이 할머니를 모시는 죽령산신제는 오늘까지 산신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다자구 할머니의 영험함과 신성성이 하나의 종교적 구심점이 되고, 봄과 가을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산신제는 주민들의 풍요와 평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삼신할머니 신화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주는 아이’에 대해 보편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삼신할머니는 아기의 출산과 성장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무속신이자 가신이며 인간은 삼신의 점지로 태어나고, 수명은 칠성신이 맡는다는 설이다. 삼신은 삼신할머니,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신할망, 삼신할아버지, 세준할머니, 지양할매 등으로 불리며, 삼신 관련 곳은 아기를 점지하기 바라는 의례로서 전국에 삼신 곳이나 삼신풀이 이외에도 세존곳, 시준곳, 불도할망 등의 이름으로 분포되어 있다.<sup>26)</sup>

전해 내려오는 신화에는 지역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수장격인 할머니가 해결사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여신, 할머니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적 지혜는 생명을 창조하고 돌보는 대지, 가정을 관장하며, 공동체의 재난을 해결하는 지혜의 상징으로서 전승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곡의 여신으로 불리는 자청비는 사랑을 얻고 땅에 정착해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농경정착의 유래를 상징한다.

---

25) 『한국민속신앙사전』

26) 위의 책.

늦도록 자식이 없던 부부가 부처님께 빌어서 부모가 ‘스스로 청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자청비’는 미모뿐 아니라 지혜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자청비는 손이 고와진다는 말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물 아래 거무선생한테 글공부하러 간다는 하늘 옥황의 문곡성 문도령을 만난다. 그리고 남장을 하고는 문도령을 따라나서 3년 동안 거무선생한테 글을 배웠다. 문도령이 하늘 옥황 집에서 장가를 가라는 편지를 받고 길을 떠나자,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나서며 비로소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밝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한 번 떠난 문도령은 종내 소식이 없다. 우여곡절 끝에 자청비는 기어이 하늘 옥황의 문도령을 찾아간다. 그리고 문도령과 혼례를 올리지만, 하늘 옥황의 선비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도령을 죽인다. 자청비는 서천 꽃밭으로 가서 환생꽃과 멸망꽃을 얻어다 문도령을 살리고 멸망꽃으로 선비들을 죽인다.

하늘 옥황에서는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상으로 줄 터이니 세금 받고 살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오곡씨를 달라고 하여 받고 남편과 같이 지상에 내려와서 중세경이 되어 농경신으로 사람들이 풍년 농사를 짓도록 도와준다고 한다.<sup>27)</sup>

자청비는 필요에 따라서 남자로 변장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처세술과 용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서천 꽃밭으로 가는 담력과 돌파력도 있었다. 자청비 신화는 현실의 어려움을 개척하는 여성적 지혜와 더불어 그 무엇보다 농사의 근본을 씨앗으로 꼽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토지의 신, 곡식의 신을 모시는 농경문화

전통적으로 농사에 중요한 기후변화를 통치자의 도덕과 연결시킬 정도로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는 곧 정치의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부족국가인 부여의 경우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는 풍속이 있었다.<sup>28)</sup>

---

27) 『디지털제주문화대전』

예로부터 종묘사직이란 영대 왕들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종묘(宗廟)와 더불어 토지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아울러 곧 국가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sup>28)</sup> 백성은 땅과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사직은 풍흉과 국가의 운명을 관장한다고 믿어 나라의 근본이라 여겨온 것이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다.

땅을 고르는 과정은 당장 먹을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좋은 씨앗을 먹지 않고 종자로 쓰는 까닭은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의 먹거리를 위해서였다.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올려제를 지내는 의미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부모-조상-하늘을 연결하는 종교적 모심의 전통이며, 먹고사는 문제의 주체는 나-지역-국가라는 인식과 양대 축을 이루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농업은 돈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종자에서부터 농민의 노동, 땅, 거름 등 기본적인 자재는 바로 농민 스스로와 가족의 노동력,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을 중요시 여기는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계측 가능한 수확량에 해당하는 ‘곡식’은 드러나는 부분이 되었지만, 농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

28) 『한국민속신앙사전』

29) 『두산백과사전』

## 내가 먹는 것은 바로 할머니가 먹었던 씨앗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라 알려져 있으며, 원산지 특성상 가장 변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콩을 밭아시켜 먹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만큼 콩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식재료, 요리방법, 약재에 이르기까지 콩으로부터 비롯된 문화도 실로 다양하다.

원산지가 아니라도 지역에 오랫동안 적응해 오면서 토착화 된 종자들이 있다. 일례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념, 식재료, 약재로 쓰이는 생강은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11세기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들여와 오랜 세월 우리 풍토에 적응해 재배되어 온 재래종이다. 원산지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1200여 종이 보고되고 있는 생강은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재래종과 음식문화를 만들게 하였다.

토종(landrace)은 땅에 기원을 두고 있다.<sup>30)</sup>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돌아간다. 토종씨앗이란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 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또는 재배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것이라고 여겨진다.<sup>31)</sup> 여기에는 원

---

30) 국제 식물유전자원연구소(IPGRI)에서는 '토종'이란 의미를 환경에 적응한 작물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종' 혹은 '본래의 농업체계에서 육성한 지역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31) 토종에 대한 한국토종연구회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이란 산·물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종',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재래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육성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않는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종' 등을 일컫는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산지에 기원을 둔 ‘원 종자(native seed)’와 같은 ‘전통성’의 의미와, 사람이 길들여온 재래종을 포괄하는 토착민의 종자(indigenous seed)로써 지속되어온 ‘현재성’의 의미가 부여된다. 유럽,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씨앗도서관에서는 기업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씨앗을 중심으로 50년 이상 채종해온 물려받은 종자(heirloom Seeds), 자연수분 품종(open polinated Seeds)을 ‘우리가 재생산 할 수 있는 씨앗’으로 여기고 있다.

결국 토종씨앗이란 한반도에서 살아온 씨앗이라는 ‘공간성’, 씨앗을 재배해온 사람들이라는 ‘주체성’과 더불어 자기 환경에 걸맞은 ‘적응성’을 갖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걸쳐 나와 두터운 관계를 맺어온 씨앗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기후변화, 병해충으로부터 적응할 힘을 길러 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 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다시 심을 때 생명력이 보존되는 씨앗

북극 노르웨이 령 스발바르 제도에는 2008년 국제연합(UN) 산하 세계 작물다양성재단이 만든 종자 저장고가 있다. ‘신(新)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부터 작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천재지변 또는 전쟁,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에 대비해 인류에게 필요한 26만800종의 샘플이 저장되어 있으며, 최대 450만 종의 씨앗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벼·보리·콩·땅콩·기장·옥수수 등 6종 5천 점을 여기에 기탁해 놓았다. 북극이 모두 녹더라도 씨앗을 보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농업유전

---

2011.7.25 법률 제10938호]

자원센터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공인하는 국제종자보존소로 지정되어 있다. 노르웨이 스팔자르 저장고에 이어 국가기관으로는 첫 번째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종자보존은 이대로 안심해도 좋을까.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종자는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 몇 십 년 후 이 종자가 필요해서 다시 되살려 본다면 기후, 계통, 병해충이 어긋나게 된다. 이 종자는 변화된 환경에서 다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농진청 종자은행에는 14만여 종자 자원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잡곡류 80종을 재배하고 있는 이기철 선생은 종자은행에서 얻은 메수수 10알을 심고 3알을 수확했다고 한다. 오래 묵은 씨앗은 발아율이 떨어진다. 이것을 되살리려는 노력 없이 한 번 땅에서 벗어난 씨앗을 종자은행이 보존하고 있으면 이것은 박제된 자원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지 정부 차원에서 토종을 수집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종자 보존 및 육성정책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1986년 이래로 토종종자를 조사한 안완식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종종자는 1993년 74%가 사라지고, 2001년 24%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토종씨앗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 먹거리는 사실 뿌리부터 불안정하다. 금산 인삼, 청양 구기자,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과 같이 지역 특산물 중에서 상품화된 종자들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의 논리로 버티기 힘든 주요 식량 관련 종자들이다. 잡곡은 대대로 한반도에서 황폐화된 땅이나 가뭄에도 잘 견뎌 가물 때 영양소를 보충하는 중요한 식재료가 되어주었다. 칼슘이 풍부한 수수를 아기 이유식에 넣거나 백일에 수수떡을 해주는 풍습은 자연 영양제로 활용한 좋은 예이다.

예로부터 잡곡은 드물게 심으라고 했다고 한다. ‘잡곡농사는 망한 듯이 짓는다’고 했으며, 조가 나올 때는 워낙 볼품이 없어서 울며 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종자는 1단보에 10가마를 심어도 1가마 밖에 수확이 안 되기도 한다. 이것을 활용하는 선조들은 수확량이 적은

조를 귀하게 약처럼 활용했다. 수확이 조금 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약을 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조진태 생산자의 설명이다.<sup>32)</sup>

시장에서 가장 빨리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잡곡이었다.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 소출이 적은 잡곡은 산업화된 농업방식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어 채소를 중심으로 한 서양 식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해먹기 불편한 잡곡이 등한시 된 것 또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잡곡은 장마와 겨울 농한기가 긴 우리나라에서 쌀에 결핍된 영양소를 공급하는 먹거리였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수입되는 잡곡은 가공식품의 재료와 사료로 더 익숙하다.

성환 참외는 한때 가장 사랑받던 재래종이었다. 오중경 생산자의 말에 따르면 이 참외는 설당을 많이 먹지 않던 시대에는 ‘사람이 벌레잡고 접목도 안하고 그냥 심고 인분으로만 지어도 달았다’고 한다<sup>33)</sup>. 그러나 같은 종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갈수록 당도 높은 것을 찾아서 조만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단 것을 많이 먹으면서 변한 사람들의 입맛 때문에도 토종씨앗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먹지 않고 심지 않는 토종씨앗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앓은뱅이 밀은 씨앗이 현지에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면 토종 종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녹색혁명의 주역인 노먼 볼로그는 키 작은 밀 품종 개발을 통해 밀 생산성을 대폭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앓은뱅이 밀은 다수확 종자 밀의 5대 혹은 6대 조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종 기록에서 우리나라 앓은뱅이 밀은 190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에서 재배되던 앓은뱅이 밀이 일본으로 도입되어 타즈마(達摩)가 선발되었다. 타즈마에서 다시 붉은 타즈마, 흰 타즈마 등 많은 품종이 계통분리 되었다. 그리고 이 품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수원

32) 『흙살림 정보』 58호. 흙살림연구소. 2005. 9. 30.

33) 임영빈. 『토종을 찾아서: 한국의 채소 재래종』. 한국토종연구회. 2008. 156쪽.

85호, 수원 92호, 조광, 내밀, 그루밀, 새밀, 청계밀, 다홍밀 등의 품종으로 육성하는 데 활용된다. 오늘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강밀 개발도 이 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3년 발간된 『조선 주요 농작물의 품종명』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던 토종밀의 이름이 90여 가지로 기록되어 있고, 얇은뱅이성도 10여 가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부분의 밀을 수입해서 먹고 있다. 국민 1인당 한 해 평균 라면을 80개 이상 먹을 정도로 밀 소비가 많은 나라에서 ‘우리밀’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낱같은 희망처럼 현재 경남 남해 농민들이 키가 작아 강한 바닷바람을 잘 견딜 수 있게 적응된 얇은뱅이 밀을 이어오고 있다. 기존의 생산체계가 지지하지 않는 종자가 지역에서부터 생산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애써온 몇몇 사람들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웰빙’ 바람을 타고 전통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은 높아졌지만 이런 명품 먹거리는 갈수록 귀해지고 비싸지다 결국에는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토종씨앗을 유지하는 농가는 교배종 품종보급이 확대되면서 희귀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명맥을 유지하는 곳도 자가소비용이나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정도이다.

## 토착지식을 전수하는 할머니의 지혜

씨앗은 대대로 여성들이 갈무리해왔다. 토종씨앗을 조사하러 가는 현장에서 광이나 냉장고 안에 소중하게 간직해온 씨앗을 꺼내오는 이들은 할머니들, 고령 여성농민들인 경우가 많다. 토종씨앗이 사라진 배경은 씨앗을 갈무리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농업방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땅과 작물에 대한 전통지식의 보유, 가정

과 지역 공동체에서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 여성들의 사회적 권위는 존중되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수확량뿐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한 영향, 성숙 시기 등을 고려해 종 다양성을 유지시켰으며, 콩 하나를 심을 때도 두부를 만드는 것, 메주를 만드는 것, 떡에 넣는 것, 밥에 넣는 것을 고려했다.

계절의 변화, 바람이 부는 방향, 주변 작물들이 성숙하는 시기, 해가 뜨고 지는 때를 보며 농사짓는 할머니의 모습을 결눈질로 배우거나 구전으로 전수받으며 배웠다. 이것이 곧 대물림되는 전통지식이었다.

농업이 기계화, 단작화되면서 여성농민들의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농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여성농민들은 보조적 역할로 밀려나 씨앗을 채종하거나 갈무리하는 일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게 되고, 주로 밭농사를 담당하는 여성의 노동은 남성들이 하는 논일에 비해 노임을 적게 받는다. 농업의 산업화가 심화될수록 여성농민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는 가려지게 된다.

이제 대다수 농민들은 씨앗을 사면 봉투에 씌어 있는 방법대로 농사짓고, 석유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에 의존해야 하며,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작물만 심게 되었다. 그럼에도 80대가 넘는 할머니들은 녹색혁명 이전의 방식대로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고 토종씨앗 텃밭을 가꾸며, 씨앗을 오래 보존하거나 요리로 활용하는 건조, 발효, 염장 등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담양 창평 고씨 집안에는 10대에 걸쳐 내려오는 씨간장이 있다. 시할머니에서 시어머니로 이어져 간장을 대물리는 것을 1년 농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최소한 150년이 넘는 이 간장은 쓸 때마다 조금씩 첨장을 하면, 씨간장이 햇간장을 포용해 나가며 그 숙성도가 이어져 내려온다고 한다. 간장은 오래될수록 부드러워지면서 독특한 향이 나고 아미노산·유기산·핵산 같은 몸에 유익한 성분 함량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보면 발효에 대한 할머니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토종씨앗 보존 운동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된 것도 여성농민들의 가치였다.

2005년 GMO반대생명운동연대에서 GMO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종씨앗 심기를 시작했을 때, 20여 명이 모여서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각지에서 받아온 토종씨앗을 나누고 수확한 결과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대부분이 채종에 실패하고 유일하게 씨앗을 받은 사람들 또한 고령 여성농민들이었다. 지역의 여성농민들은 ‘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농사방법들을 전수 받아야 하는데’라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토종씨앗을 장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할머니들의 지혜가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인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에서 여성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인정되었다. 여성들의 역할은 비형식적인 일상을 포괄하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아이를 돌보는 일과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다치거나 누군가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할머니는 아이가 슬픔이나 속상함에서 벗어날 때까지 얼러주고 함께 놀아준다. 아이들을 대신해서 부모에게 말을 전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돌봄의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맡는 것 또한 할머니의 담당이었다. 가정과 공동체를 연계시키며, 땅과 동물들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에서 여성들이 보다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34)</sup>

## 토종씨앗 보유자가 되살리는 씨앗, 살림, 공동체의 문화

토종씨앗 보유자는 씨앗을 매개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토착지식을 기반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가 된다. 이들은 개인이며 동시에 집단

34)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양희승 옮김. 『오래된 미래』. 중앙북스. 2012. 151쪽.

적인 주체로서, 씨앗과 토착지식은 결국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다. 이들이 체득하는 토착지식이란 지역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지식의 보고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주로 공예, 음식, 놀이, 의례, 행위예술 등이며 토착지식을 오랫동안 전승해온 토종씨앗 보유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확하고 갈무리해야 하는 씨앗들을 전해 받고 보존하는 이력을 쌓는 것은 곧 전통의 대물림인 동시에 현재적 계승을 의미한다. 보유자는 씨앗을 나누면서 씨앗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재배 특징, 수확물로 음식을 해 먹는 방법 등을 전한다. 여기에는 할머니, 시어머니, 혹은 그 윗대 선조들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이웃이나 옆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에 말을 전하는 자신의 생각도 덧붙여진다. 이렇게 이야기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 창조에 개입하는 씨앗 보유자야 말로 중요한 무형문화의 보고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산도 구들장논 등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중요농업유산이 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우리 종자도 없다면 그야말로 박제화 된 박물관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구들장논이 관광 상품이 되어 농촌에 모여드는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농사로부터 비롯된 문화가 되살아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구들장논을 중요 농업유산답게 보존하는 길은 우리 씨앗을 보유하고 그 곳에서 지속적으로 농사지으면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공동체의 문화가 되살아나는 데 있다. 이 내재적 힘이 주체가 되어 외부 손님들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에서 현재를 잇고 다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 지역 먹거리의 원조, 토종씨앗

씨앗의 선택은 지역마다 달랐다. 이들이 선택한 곡물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보면서 저장성, 영양분 등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뒤 선택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의미와 가깝게 ‘소울푸드(soul food)’란 말이 있다. 이것은 미국 흑인들의 전통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적으로 자란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서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 그 속에 담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먹는 음식’을 의미한다.<sup>35)</sup>

그러나 어느새 마트에서 장을 보는 데 익숙한 우리는 먹거리에 담긴 생산자들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다. 신선한 ‘냉장유통 주스’라 광고하는 000 포도주스의 주 원료인 포도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칠레산 88%, 미국산 11%라고 쓰여 있다. 칠레와 미국은 한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식품의 평균 운송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체인이 식품의 운송거리와는 상관없이 가격 경쟁력과 공급자의 안정성만을 중요시 여긴 결과다. 1961년 이래로 국제 식품 거래량은 네 배로 늘어났다. 심지어 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유기농 식품들도 마음만 먹으면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기나긴 거리를 건너오는 동안 보존 처리를 한 유기농 먹거리는 유기농일까’ 하는 의문도 생겨난다. 한겨울에도 계절이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제철에 나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영양과 맛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옛말에 ‘종자는 산을 넘기지 말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산과 강에 가로막힌 이 땅, 지역에서 적응해온 종자라는 이야기다. 한편으로 지역에서

35) 이원종이소영. 『영혼의식탁』. 청림라이프, 2012. 8쪽.

토종을 조사하다 보면 머느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시집을 때 친정의 씨앗을 보물처럼 가져와 심거나 먼 곳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옮겨지는 일도 비밀비재했다. 종자는 사람을 통해 나누거나 이동하면서 지역에서 적응해왔다. 토종씨앗이란 대를 이어 물려오고 심고 거두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토착화된 씨앗이다. 우리나라의 토종씨앗은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온 종자이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생명이 이어져온 그 시점부터 해당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병충해, 추위, 더위 등에 적응 또는 극복해 온 것이다. 따라서 한 해 역병이나 기상이변에 영향을 받더라도 종이 몰살되는 일은 드물다. 일본에서 유채를 매년 재배하는 츠쿠타 생산자는 그 지역에 해충이 크게 번졌을 때 자가채종을 해온 자신의 유채가 무사한 것을 발견했다.<sup>36)</sup> 대부분 구매한 종자를 사용하는 이웃 밭의 유채들은 벌레로 큰 몸살을 앓았지만, 자신의 유채는 벌레 먹은 것이 약간 있어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작물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내병성 역시 주변의 토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획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통일벼 경우처럼 신품종을 보급했다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재래종에서 발굴할 수 있다. 1970년대 인도에서부터 인도네시아에 걸친 광대한 논에서 벼 생육 저해 바이러스가 퍼졌던 사건에 대한 해결책 역시 재래종에 있었다. 17,000종 이상의 재배 벼 품종과 원종 표본을 4년에 걸쳐 선별 검사한 결과,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쉬 주의 곤다 근교에서 재배되는 ‘오리자 니바라’라고 불리는 한 품종만이 이 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

36) <http://blog.naver.com/nanum001?Redirect=Log&logNo=130101558098>

가을날의 지혜

박노해

가을이 깊어지면 어머니는 / 찰벼, 들깨, 녹두, 기장, 콩, 고추, 조, 수수  
한 해의 결실을 흙마당 명석에 늘어놓고 / 세 갈래로 정갈히 분류하셨다

가장 좋은 것은 내년에 써 뿌릴 종자로 / 그 다음 좋은 것은 이웃들 품앗이와 선물로  
나머지는 우리 먹을 식량으로 갈무리하셨다

어린 나는 그것이 불만이였다 / 가장 굵고 여물고 싹한 것들은 왜  
땀 흘려 거둔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 종자로 싸매 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지

그날 밤 호롱불 앞에 기도를 마친 어머니  
평야, 농사는 누가 짓는 것이냐 / 하늘이 짓고 기후가 짓고 대지가 지어 주신단다  
이 결실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 땅에 묻힌 종자에서 나오는 거란다

사람이 아무런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재주를 부려도  
하늘이 한 번 흔들어 버리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다  
아무리 큰 재난이 닥쳐도 서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관계만 살아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

어려운 날이 닥치고 앞이 안 보일 때마다 / 너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그 가을 어머니 말씀이 새롭게 울려오네

## 4천 년을 이어온 농법에 대한 배반

미국농림부 토양관리 과장이 쓴 『4천 년의 농부』는 유기농업의 원류를 찾아 동북아 지역을 견학한 후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도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은 이유를 소개한 책이다.

“문명화된 인류의 가장 주목할 만한 농업 기술 가운데 하나가 중국, 한국, 일본이 수세기 동안 지속시켜 온 인분활용법이다.”

즉, 흙을 살리는 농법이 이 사회에서 진화된 농업이라는 것이다.<sup>37)</sup> 서구의 농업지대 거의 대부분이 100년 이상 농사를 짓지도 못한 데다 비옥하지도 않고 엄청난 무기비료를 매년 부어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몽골계 민족이 오랫동안 지속시켜온 농업기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한·중·일 농민들은 토양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 콩과 식물을 다른 식물과 돌려짓는 것을 오랜 관행으로 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과학에서 30여 년의 논쟁 끝에 인정받게 된 이론과도 부합한다. 1888년에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고 있는 뿌리혹박테리아가 토양의 질소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들은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끌어와서 토양 질소분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동식물이 부패될 때 질소는 공기 중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sup>38)</sup> 농민들이 땅을 살리기 위해 콩과 식물을 다른

37) F. H. King. 광민영 옮김. 『4천년의 농부』. 들녘. 2006. 179쪽.

38) 조셉 젠킨스. 이재성 옮김. 『똥살리기 땅살리기』. 녹색평론사. 2004. 107쪽.

작물들과 더불어 돌려짓기 해온 농사법이 경험적으로 토양비옥도 유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현대 농업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화된 화약과 생화학 무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료와 농약 덕분에 전례 없는 풍요를 맞았다. 그러나 토양의 양분 부족은 비료로, 해충엔 농약으로 하는 그야말로 환원주의적 대책으로 인해 자연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FAO의 피터 켄모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sup>39)</sup>

“논에 농약을 뿌리면 해충이 500~1000배 늘어난다. 최초로 이루어진 대응은 농약을 더 많이 뿌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벼를 먹는 벌레와 벼를 먹는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가 있다. 농약을 뿌리면 벼의 안에 숨어있는 벌레가 알을 남기고 둘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해충이 부화하면 천적이 없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해충 발생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고 4~5년 걸리는데 다수확 벼 품종이 1966년~1967년에 도입되어 1970년 전후에 처음으로 크게 발생하고, 그 뒤 남아시아와 동 남아시아에서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불과 100년 사이에 비료와 농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농법에 둘러싸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이 대두된 1990년대 이후에는 비료와 농약을 치는 농민들이 비도덕적이라는 비난까지 듣게 되었다. 4천 년을 이어온 문명화된 농법을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고 더 많은 수확량을 내세우며 규모화 농업을 지향해온 이 시대에 비료와 농약을 치는 것이 농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100년 전에 미국의 책임 있는 농무부 관리가 더 이상 공업형 농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충격적 보고서를 제시했음에도 세계는 변하지 않았다. 땅을 살리는 농업이라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100년 동안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농업방식은 더욱 규

---

39) Interview with Peter Kenmore. The Habitable Planetcontact Annenberg Media staff, Dec 32, 2009; 요시다 타로. 『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 들녘, 2011. 353쪽 재인용.

모화되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농약사용이 꾸준히 늘어 2008년 현재 농약 출하량은 2만5,368t, 농경지 1ha당 농약사용량은 13.8kg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화학농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찍이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식량안보 관점에서 규모화 농업을 육성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오늘날 콩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적절한 보급종자를 분양받아 파종하며, 제초의 편리와 다수확을 위해 비닐멀칭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복주기와 제초작업이 거의 없으며, 비닐의 보온성으로 인해 파종 시기가 다소 앞당겨졌고, 단위면적당 소출도 다소 높아졌다. 수확 후 탈곡방식 또한 도리깨 대신 경운기나 일반차량으로 콩더미를 지나다니게 하여 탈곡한다.<sup>40)</sup>

불과 몇 십 년 만에 우리나라 농촌의 풍경은 이와 같이 변모했다. 이렇게 산업화된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농업, 유기농업, 생태농업 운동이 움트기 시작했지만 다국적기업들이 제공하는 비료·농약 패키지가 농촌지역에서 일상화될 만큼 세계화가 개입하고 있는 식량체계의 구조는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 화학 산업이 지배하는 농법

농업 역사에서 지금과 같이 규모화·시설화 된 방식의 농업이 이루어진 시기는 불과 1백 년 남짓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어서 혼란을 겪어야 했다.

---

40) 『한국세시풍속사전』

농촌지도소에서 권하는 신품종도 뿌려보고,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는 말에 비료도 열심히 주었다. 산업화된 농업이 발전하면서 비료를 듬뿍 주어 영양이 과잉된 토양에서는 작물뿐 아니라 모든 풀들이 잘 자랐다. 풀밭이 되어버린 논밭에서 작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잡초’들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 발전이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농약 광고는 잡초만 골라 죽이는 농약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겠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잡초만 골라 싹도 못 트게 하는 발잡초약, 000!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작물의 잡초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된 논밭에서 그해 잡초들은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농약을 뿌려 주거나, 새로운 농약을 추가로 뿌려야 했다. 이렇게 현대화된 농법에서 재래종은 걸맞지 않다. 영양이 과잉된 토양에서 발버는 웃자라 쓰러져 누워 버리거나 개량종에 비해 수량이 덜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인다. 또한 비닐을 쓰지 않고 재배하는 배추는 상대적으로 병충해가 많고 잘 자라지 않는 걸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농민들은 다수확 개량종을 장려하는 녹색혁명 이래로 종자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례로 벼 종자 중에 ‘노퍽’을 쓰지 않으면 농촌지도소 관리들이 와서 못자리를 밟아 버리는 일이 흔했으며, 보조금 등의 지원에서도 소외되었다.

농협은 지역에 할당되는 농기계, 농약, 비료 등에 배치된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약 사용에 압력을 행사하고 농민들끼리도 눈치를 보는 웃지 못할 일이 비일비재했다. 녹색혁명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젊고 진취적이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업은 규모화, 단작화되어 갔다. 1970년대

부터 비닐멀칭, 하우스 시설 등이 속속 들어섰으며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한국의 농촌은 산업화 농업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어느 순간에 농민 들조차도 씨앗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나 농협, 종묘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상황은 아니었다.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의 배경에 정부 주도의 개발 방식, 비료-농약 패키지로 종자에서 식탁까지 수직 계열화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널리 퍼지고 있다.

## II. 종자를 판매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



## 종자를 공급하는 새로운 주체의 선언

*"어떤 나라에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봉사는 유용한 식물 한 가지를 그 나라 문화에 더하는 것이다."*

- 토마스 제퍼슨

해바라기, 블루베리, 크랜베리, 뽕단지과 같이 북미를 기원으로 하는 씨앗을 제외하고 미국은 대부분 이주민들이 들여온 씨앗과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씨앗으로 식량작물을 삼았다. 이것은 지역이나 씨앗의 특성에 따라 작물명을 지었던 우리나라와 달리 씨앗에 수집자나 개발자의 이름을 명명해온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에서 미국의 종자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미국종자산업협회는 자신들이 종자를 공급하는 새로운 주체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41)</sup>

"새롭고 희귀하며 가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자를 보급하는 일은 법적으로 정당한 산업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며, 선별의 권리는 개별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 노력이나 이들 계급의 관련된 작업에 맡겨야 한다."

그야말로 '다른 나라 노동과 과학의 창조물'인 종자를 보급하는 주체가 종자 기업들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생산의 권리보다 개별 소비자들의 권리에 호소하면서 종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뒤바뀌게 된 역사의

---

41) USDA 1896. p. 211; 잭 클로펜버그. 허남혁 옮김. 『농업생명공학의 정치경제』. 나남. 2007. 124쪽 재인용.

시작을 말해주는 것이었다.<sup>42)</sup>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달한 농업은 넓은 경지면적에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자본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공업형 농업이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목적을 둔 수출형 농업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농업모델은 지역의 필요에서 비롯된 식량생산 체계와는 달리 시장을 통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자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며, 기계, 비료, 농약산업과 함께 더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한 교잡종 종자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자유무역의 논리를 옹호하는 세계 식량체계를 만들어냈다.

## 종자 개발자의 선수 교체: 농민에서 기업으로

*"씨앗을 지배하는 사람이 농민을 지배한다."*

*- 남아메리카의 옛 격언*

돈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지만 씨앗을 사고 판다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을 먹지 않는다’던 농민들은 어떻게 씨앗 소비자가 되었을까?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농민들은 좋은 씨앗을 골라두었다가 바로 먹지 않고 내년에 다시 심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식물들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였고, 그래서 오늘날의 식량작물과 같이 생산적인 자원을 만들어냈다. 형질이 우수한 종자를 선별하고 육종해온 농민들의 수고에 따른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농민들은 수천 년 적응해온 종자들이 저장하고 있는 유전적 정보만큼

---

42) 당시 식물자원 도입에 관련된 중요 인사인 크로포드 장관은 국가를 수립하는 데서도 입종의 가치를 ‘다른 나라 노동과 과학의 창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Klose, 1950. p. 26; 책 클로펜버그, 108쪽 재인용).

다양한 전통지식의 보유자들이었으며, 농업의 역사 대부분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 곧 육종가라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된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가 종자개발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전쟁 등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다수확 생산 방식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까운 거리의 자원을 활용하던 전통농업 방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 인간의 필요를 위한 육종에서 교잡종으로

농가에서는 좋은 씨앗을 골라 자기 토양에서 적어도 6~7번 이상 되심을 반복하여 형질을 고정시킨다. 농사짓는 현지에서는 좋은 종자를 골라서 먹기 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민들이 육종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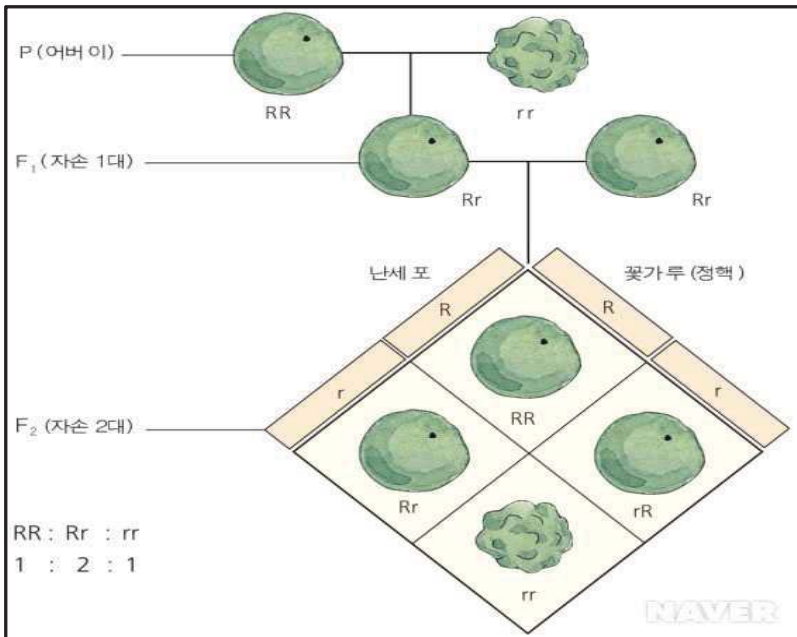
오늘날 옥수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진화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옥수수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주곡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자연적 발생뿐 아니라 인간의 개입과 의도적 개량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옥수수의 경우 원래 자가수분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옥수수 이삭의 각각 알맹이들은 다른 식물에서 온 꽃가루와 다양하게 수분될 수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보고되는形形色색의 옥수수는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인 동시에 주식 혹은 보조식량에 따라 크기나 맛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토종 옥수수는 크기가 작다고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에서 육종된 옥수수 중에는 어른 팔뚝 크기만 한 것도 있다. 이 옥수수를 육종한 농민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특히 옥수수가 구황작물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옥수수가 양적으로 클 수 있도록 육종해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농사 전문가인 농민들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종자를 개량해온 것이다.

그러나 교잡종의 원리는 농가에서 필요에 의한 육종방식과 어긋난다.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멘델의 유전법칙은 식물 잡종의 기본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멘델은 부모의 특성, 즉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후에 유전자라고 불리게 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종자의 교배에 의해 우성형질의 조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잡종 1세대의 강세를 이용하여 교잡종이 나왔다. 교잡종은 부계와 모계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특정한 우수 형질을 지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는 부모로부터 받은 열성형질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다. 한 번 심은 종자에서 맺은 씨앗을 자가채종하여 다시 심을 경우 1세대의 우수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림〉 멘델의 유전법칙



출처: 홍준의 외.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휴머니스트, 121쪽.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초록색의 둥근 완두콩과 노란색의 주름진 완두콩을 교잡하면 잡종 1세대에서는 초록색의 둥근 완두콩만 수확된다. 그러나 이를 자가채종한 후 나온 잡종2세대에는 초록색의 둥근 완두콩 외에도 초록색의 주름진 완두콩, 노란색의 둥근 완두콩, 노란색의 주름진 완두콩 등 네 가지 형질이 9:3:3:1의 비율로 다 나타난다. 결국 전체 16개 중 9개만이 상품화가 가능한 초록색의 둥근 완두콩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의도치 않던 열성 형질이 나오면서 ‘농사 반타작’이 나는 것이다. 즉 교잡된 씨앗을 갈무리하는 행위는 먹거리 수확에 도움이 안 되는 쪽정이가 절반정도 나올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우수한 형질을 교배해서 우성형질의 조합으로 종자의 능력을 확대시킨다는 잡종강세의 원리는 부모의 강점만을 물려받은 초우성종자의 형질이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즉 최상의 우성형질을 발현시키는 잡종종자를 자연계에서는 그 다음해에 다시 볼 수 없다. 자연은 그 어떤 초우성의 우월적 지배를 장기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자 개발자들은 끊임없이 교잡종을 개발해왔으며, 우리에게 는 농민 육종보다 멘델의 유전법칙이 훨씬 익숙하다. 그러나 실험과정에서 최상의 조합이 아닌 먹거리에 필요한 씨앗이라면 교잡종의 원리가 보다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

### 가공식품 개발을 주도하는 교잡종 옥수수

정부 프로젝트가 주도하는 교잡종은 여전히 실험적이었으며, 소수였다. 미국에서 1933년 잡종 옥수수는 전체 농작물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밀, 쌀, 옥수수는 이삭이 많이 달리며 줄기가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새로운 품종개발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대전을 거

치면서 비료생산 능력으로 뒷받침되었다. 1910년에서 1938년 사이에 지구 전체 비료 사용량은 세배가 늘었다. 수천 년 동안 땅에 의존해온 농업에서 인간이 질소순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8년 미 농림부는 농지의 61%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거나 비옥도를 상실했다고 보고했다. 상실된 토양을 메우기 위해 토지의 비옥도를 높인다는 비료를 다시 쏟아부어야 했다.

1934년과 1944년 사이에 교잡종 옥수수의 매출액은 0에서 시작해서 7천만 달러까지 치솟았다.<sup>43)</sup> 1960년대에 이르면 불과 30년 만에 대부분의 옥수수가 교잡종이 되었다.

1998년 시리얼 회사들이 얻은 이윤은 농가들의 수백 배에 달했다. 빵튀기된 먹거리는 신선한 원재료보다 저가에 공급되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도시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었다. 범 아메리카 보건기구는 가공식품과 저소득 계층의 관계를 이렇게 보고한다.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며, 자신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다만 구할 수 있는 것을 먹을 뿐이다. ... 식량산업은 낮은 구매력을 가진 계층들을 구분하고 그들에게 품질이 낮고 지방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상품에 대한 대중적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그러한 소비 패턴을 장려하고 있다.”

현대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옥수수다. 옥수수가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쓰이는 전분당의 주재료이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기도 안 되는 동안에 옥수수는 초기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끔 빵, 스프, 팝콘, 콘플레이크, 과자, 콜라, 아이스크림, 커피 시럽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변모했다. 제과류나 유제품을 비롯해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영역에 옥수수 전분당이 쓰인다. 그런데다 현재 국내에는 전분당 제

---

43) Steele, Leonard. "The hybrid corn industry in the Unites States". In D. B. Walden(ed.) Nutritional Quality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Mt. Kisco, NY: Futura. 1978. 29.

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양을 비롯한 네 개 대기업들이 GMO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 농가 등에서 소의 사료로 옥수수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길러진 소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수확생산으로 과연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마트 진열대마다 선택하기 벅찰 정도로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각종 화학합성물질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가난할수록 비만 인구가 더 많은 특이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해서 주요 식량자원이 된 옥수수는 오늘날 산업적 필요에 따른 다양한 가공 먹거리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석유를 대신하는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의 탄생

*"생명에 대한 특허제도는 헨리 포드가 모든 자동차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청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먼화 육종가*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일까. 1920년 독일의 카를 빈딩, 알프레드 호헤는 “살 가치가 없는 삶의 파괴에 대한 허용”을 발표하면서, 치유 불가능한 백치나 밥벌레들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죽이면 사회 전체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나치즘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 얼마

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도 도처에서 자연스런 행위처럼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198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생명에서 가치 있는 부분을 소유해서 특허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자본 시장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특허를 주장하는 식물들이 바로 인류의 대부분이 의존하고 있는 식량작물이라는 데 있다. 1985년 실용특허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살아있는 식물체 자체는 물론 세포와 DNA 서열에 이르기까지 식물체의 구성 요소 모두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천 년간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온 농민의 당연히 행위를 문제화시켜 버렸다. 자연과 농민이 공생하면서 창조해온 씨앗은 이제 기업과 전문 연구자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어떤 원종자들을 교배하여 교잡종을 만들어냈는지는 최초의 기술 개발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 되었으며, GMO도 기술적으로만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DNA 서열 혹은 생명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지금 자본 시장을 통해서 씨앗을 사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들고 있다.

## 종자는 종자 개발자의 소유인가

오늘날 종자 개발을 주도하는 대표적 기업인 몬산토는 애초 화학기업으로 출발했다. DDT와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의 개발자로도 잘 알려진 몬산토는 화학공업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초제와 종자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오늘날 먹거리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1년 몬산토는 '라운드업'(Roundup)이라는 제초제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라운드업'은 강력한 제초제로, 적은 양으로도 모든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내세워 홍보하였다. 이후에는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글리포세이트' 계열의 제초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 후 20년, 몬산토는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을 가지고 라운드업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라운드업 제초제에 내성을 지닌 유전자를 골라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유전자를 콩에 집어넣어 라운드업 제초제를 극복할 수 있는 '라운드업레디' 종자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신젠타도 리버티 제초제에 내성을 지닌 '리버티 링크'라는 같은 원리의 GMO 패키지를 내놓았다.

1996년 미국에서 라운드업레디 콩을 팔기 시작했을 때는 단지 2%의 콩만이 라운드업레디 특허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미국의 콩 90%가 이 특허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1985년 실용특허에 관한 판례가 나왔을 때만 해도 농민들은 특정인이 종자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도 안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후에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몬산토는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신고를 위한 직통전화를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감시했다.

미국의 데이빗 루연이라는 농민은 일리노이 주의 마지막 씨앗을 보존하고 있었다. 몬산토 씨앗을 쓰지 않기 위해 '나 하나만이라도 재래종을 쓰겠다'고 했으나, 이내 이웃들이 사용하는 GMO에 의해 오염되었다. 날아온 꽃가루나 우연히 떨어진 씨앗에 의해 주변 이웃들이 심은 작물의 GMO가 옮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오염된 농가 스스로가 몬산토의 씨앗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특허침해,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아니면 저항한다면 몬산토와 같은 기업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해야 했다.

몬산토는 현재 옥수수, 목화, 콩과 카놀라, 채소의 종자를 교배, 배양, 생산, 판매하는 업종에 주력하면서 전 세계 유전자 변형 식품의 90%에 대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전 세계 46개 국가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으며, 몬산토코리아는 한국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합병해 만들어 졌다. 현재 몬산토코리아는 동부팜한농에서 인수했지만, 한국의 청양고추와 같은 주요기술들에 대한 특허는 여전히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연선택의 과정을 건너뛰는 GMO

1862년 다윈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풀이든 관이 긴 난을 발견한 후 ‘난의 관과 마찬가지로 긴 혀를 가진 곤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러한 혀를 가진 나방이 실제로 1903년에 발견되었다.<sup>44)</sup> 나방은 난의 꿀을 먹고, 난은 나방을 통해 수분을 하는 관계와 같이 나방이 꿀을 먹기 위해 혀가 길어짐으로써 화분도 잘 묻도록 진화해왔다.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는 것을 ‘공진화’라 한다.

가뭄이나 기상이변이 심한 해에는 식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그것을 먹이로 하는 동물의 수 역시 줄어든다. 반대로 기후가 좋아서 식물이 잘 자란 해에는 동물들의 수나 활동도 활발해진다. 이렇게 다양한 종을 둘러싼 먹이사슬이 유지되는 한 특정 종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일방적으로 멸종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은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어떤 지역에서는 벼의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 벼를 먹이로 하는 참새를 없애려 하자 오히려 수확량이 줄었는데, 참새가 벼

---

44) 오바라 히데오 저. 강금희 옮김. 『생물다양성』. 뉴턴코리아. 2011. 10쪽.

의 해충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생태계의 일원인 인간의 의도는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자연선택, 공진화의 과정을 건너뛴 GMO는 식물 혹은 동물일까, 그도 아니면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과 같은 존재일까.

GMO는 1만 년 가까이 축적된 육종 지식에서 급격한 이탈을 가져오고 있다. 생명마다 자기에게 적합한 공간에서 그물망처럼 얽혀 진화해 왔는데,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DNA를 갖게 된 존재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를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명명하고 ‘식량 증산, 영양성분의 개선, 저장성 향상 및 병충해 내성 향상 등을 위해 생물공학기법으로 처리한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인간은 수천 년 간 자기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먹거나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미생물의 유전자를 식물체에 투여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해파리 유전자를 원숭이에게 집어넣는 것은 육종의 단계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1870년대 프랑스 포도주 산업은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진딧물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찰스 라일리라는 사람은 북아메리카의 포도종이 이 진딧물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항성을 얻었으나 프랑스의 포도종은 그 진딧물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sup>45)</sup> 병해충, 기후에 대한 저항성이란 식물이 그 지역에서 살아오는 동안 획득하게 되는 저항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MO의 기본원리는 수천 년 간 인간과 자연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진화의 원리와 배치된다. 인간이 만든 낯선 물질은 이전에 자연세계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이다. 자연에서 어떤 물질에 적응하려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몇 년 정도가 아니라 생태

---

45) 조나단 실버타운. 진선미 옮김. 『씨앗의 자연사』. 양문. 2010. 60쪽.

계의 시간 개념에 의해 몇 세대에 걸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한 새로운 물질이 생물의 체내 및 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배출되는지 보고되기에는 실험 시간이 충분치 않다.

비타민A를 강화한 GM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정성 평가단계에 와 있다. 이 GM쌀은 DNA 재조합 기술이나 유전자 접합기술을 통해 정상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 베타카로틴을 생합성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효소들을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벼에 삽입시킨 것이다. 그러나 비타민A 강화쌀을 먹으면 비타민 성분 섭취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전에 상업화될 가능성이 높다. GMO가 먹거리에 도입된 이래 생태계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인간의 목적을 위한 실험용 생명

말과 당나귀를 교배한 노새는 새끼를 낳을 수 없다. 말의 염색체 수는 64개인 반면 당나귀는 62개에 불과하다. 짝을 이루지 못한 염색체 이상으로 잡종 1세대는 튼튼한 우성이 나오지만, 다음 대는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도 염색체 수 이상은 희귀질환을 일으킨다.

인간이 섭취하게 된 유전자변형 먹거리의 출현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상업용 GMO 종자가 승인된 이래 그 검증의 시간이 아직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 영역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상업적으로 바이오 신약업계까지 결합되어서, GMO 영역은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끊임없이 재도약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해파리에서 추출한 녹색 형광 유전자를 소의 난자에 주입해 탄생시킨 이른바 '형광 소'를 성공했다고 보도했다.<sup>46)</sup> 형광 소

---

46) SBS TV 2012. 11. 22.

40마리 가운데 8마리가 송아지 생산에 성공하면서 생산효율을 20% 대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현재까지 소에 외래 유전자를 넣어서 형질 전환된 수정란을 이식했을 때 생존율은 1% 미만이었던 것을 최초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를 잘 활용하면 우유 속에서 바이오신약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신약을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는 명분을 위해 실험용 생명으로 살아갈 소의 운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연 생태계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해파리와 소의 유전자적 결합으로 탄생한 형광소는 과연 새로운 생명체일까. 환경의 적응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 바이오신약이 인간의 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인간이 흔들어 놓은 생태계의 미세한 파열이 인간에게 어떤 형태의 균열로 되돌아 올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

## 자본의 이동을 주도하는 농식품기업

201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관련 선물 거래에서 실제 농산물 거래는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금융 자본들의 거래’라고 폭로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온 것처럼 농산물 거래는 국제적 교환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농산물 거래가 실질적인 필요에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상의 거래로서 자본만 이동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곡물시장은 카길(Cargill), ADM(Archer Daniels Midland), LDC(Louis Dreyfus), 병기(Bunge) 같은 4대 농식품복합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 중개나 하는 기업이 아니라 비료 및 제초제 개발로부터 차근차근 자본을 축적하여 식품가공, 저장시설 운영, 유통 및 운송을 위한 항만과 선박 사업까지 확대했으며, 여기

에 종자개발, 금융 및 투자 사업,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 곡물과 농업 부문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으로 몸집을 부풀려왔다.

4대 농식품복합체는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약 80%, 전 세계 곡물 저장시설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곡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적 능력 역시 47%에 이른다. 이들 4대 농식품복합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곡물의 국제 거래, 저장, 운송이 쉽지 않을 만큼 이들은 세계 곡물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 독점뿐 아니라 한 시대의 농업방식을 창조하면서 후발 주자들에게도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종자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몬산토, 듀폰, 신젠타 등이 떠오르는 후발주자들이다. 한국의 동부팜한농 같은 경우도 차세대 몬산토를 꿈꾸고 있으며, 여타 대기업들이 종자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2012년은 가뭄, 폭염 등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속에 일찍부터 국제곡물 가격 인상이 예측되었다.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 속에 국내 먹거리 가격의 인상폭도 대폭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폭등하는 식량가격을 걱정하는 가운데 위기가 곧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각종 투자정보 업체들은 콩, 원유, 가스 등 펀드 상품의 높은 수익률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원유, 가스와 나란히 콩과 같은 곡물이 자본의 이동을 주도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자본을 축적한 종자기업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 다국적기업들이 세계를 식량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농민의 손에서, 더 나은 종자가 오늘날 급증하는 인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지구의 내일을 보존할 수 있도록”

- 몬산토 광고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농업을 개선하고 세계를 식량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현재 종자 및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몬산토에 대한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먹거리와 환경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종자독점을 추구하며 개발도상국 농업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으로 몬산토를 비판하는 한편, 경영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맞게 핵심 사업을 이동시키면서 발전해 온 ‘변신의 귀재’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전 지구적인 식량위기, 경제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던 2008년, 2009년에 몬산토는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비즈니스 위크》

〈표〉 세계 종자 및 농약산업에서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

(2009년 기준, 단위: 100만 달러)

기업명	종자		농약	
	매출액	순위 (점유율)	매출액	순위 (점유율)
몬산토 (미국)	7,297	1 (27%)	4,427	4 (10%)
듀폰 (미국)	4,641	2 (17%)	2,403	6 (5%)
신젠타 (스위스)	2,564	3 (9%)	8,491	1 (19%)
바이엘 (독일)	700	7 (3%)	7,544	2 (17%)
다우 (미국)	635	8 (2%)	3,902	5 (9%)
BASF (독일)	-	-	5,007	3 (11%)
상위 6개사 합계	15,837	58%	31,744	71%
상위10개사 합계	20,062	73%	39,468	89%

출처: 문화 및 생물다양성,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단체(ETC), 2012; 윤병선·김선업, 2012

지가 선정한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대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런데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환경오염, GMO 안전성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 환경보전, 식량위기 해결 같은 슬로건으로 혁신의 이미지를 내세워 대응해 왔다.

2012년 6월 미국에서 열린 G8에서는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신동맹’을 식량위기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45개 다국적 기업과 손잡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 이런 접근은 연이어 열린 G20에서도 나타났다. B20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신젠타, 아처앤대니얼스, 듀폰과 같은 다국적 농산복합체와 네슬레, 펩시코와 같은 식품가공유통 회사들이 식량위기의 해결자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과연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의 식량위기를 해결해 낼 수 있을까.

신젠타 역시 ‘식량위기가 터지지 않게 막는 것’을 자사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sup>47)</sup> 동남아시아 메콩강 삼각주 일대에서는 기존의 주작물인 쌀 대신 옥수수와 커피, 카사바 등 ‘돈이 더 되는’ 상품 작물로 대대적인 재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신젠타는 인도와 베트남 등지에서 각종 종자부터 시작해서 제초제, 살충제 등을 한데 묶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종자 선택에서부터 잡초, 해충, 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농업 산출을 늘리고 농가소득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무인헬기,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농부들에게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대해 예보를 하는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방식이 토양의 생명을 빨리 소진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신젠타는 이런 비판에 대해 “제초제나 살충제 등의 효과적 사용으로 생물다양성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47) 「주간조선」 2231호. 2012. 11. 12.

식품첨가물 사카린을 생산하여 코카콜라에 납품하는 것으로 시작한 몬산토는 1902년부터는 카페인과 바닐린을 생산하면서 규모를 늘려갔고,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17년부터는 아스피린 제조에도 뛰어 들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에도 진출하여 다국적 종합화학 제조기업으로 성장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화학무기인 ‘에이전트 오렌지 (Agent Orange)’를 미군에 공급했던 기술에 기반을 둔 화학산업으로 농업에 뛰어 들었다. 몬산토는 1971년 ‘에이전트 오렌지’의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자,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가 적정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1997년 2월 주력 업종인 화학부문을 매각하고 생명과학 중심의 녹색혁명에 사운을 걸겠다고 발표한 후 본격적으로 생명과학에 근거한 비생물 의약부문 사업을 추진해 왔다.

몬산토, 신젠타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성장기를 살펴보면, 우리의 먹거리가 화학산업과 결합되어 ‘식품’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최근 생명공학과의 결합으로 바이오산업에까지 확대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다국적기업들의 주장과 달리 종자는 농민의 손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윤은 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종자와 먹거리의 미래를 맡겨도 좋을까. 1990년대 초반 8억 5천만 명이던 기아 인구는 현재 약 10억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늘날 약 10억의 인구가 기아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중 80%가 농촌에 살고 있고, 그 중 50%가 소농이라는 보고 자료도 있다<sup>48)</sup>. 즉, 세계를 식량위기에서 구하려면 소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된다. 소농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식량위기 등으로 겪는 취약성을 낮추고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업의 이윤창

---

48) Human Rights Council.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 2012.

출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 농업개선에 실패하고 있는 몬산토에 대한 비판

환경을 염려하는 시민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환경적 대안을 위한 시민과 과학자들 모임’과 같은 그룹은 몬산토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안적인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곳이다.<sup>49)</sup>

### #1. ‘더 많은 제초제’ + ‘더 적은 나비’ = ‘더 좋은 씨앗’인가?

**몬산토:** "농부의 손에서, 더 좋은 씨앗은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구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경적 대안을 위한 시민과 과학자들 모임:**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은 1996~2008년 사이 제초제 사용을 3억 8300만 파운드로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라운드업 레디가 도입된 이후 서식지가 파괴된 덕분에 제왕나비는 81%정도가 더 적은 알을 낳았다.

### #2. 슈퍼잡초의 번성

**몬산토:** "급속한 인구 성장으로 땅, 물, 에너지와 같은 한정된 자원에 대한 위기가 증대되고 있다."

**환경적 대안을 위한 시민과 과학자들 모임:** 그러한 문제는 현실이지만, 몬산토의 상품은 해답이 아니다. 최근 ‘환경적 대안을 위한 시민과 과학자들 모임’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몬산토의 상품이 미국의 수확량을 개선시키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한편,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에 대한 답으로 라운드업레

---

49) [http://www.ucsus.org/food\\_and\\_agriculture/our-failing-food-system/genetic-engineering/monsanto-fails-at-improving.html](http://www.ucsus.org/food_and_agriculture/our-failing-food-system/genetic-engineering/monsanto-fails-at-improving.html)

디 작물을 남용하는 것은 "슈퍼잡초"의 비극을 낳고, 미국 농민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3: 가뭄 저항성에 대한 완전 거짓

**문산토:**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농민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많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

**환경적 대안을 위한 시민과 과학자들 모임:** 농민이 더 많은 물을 보존하길 바란다면, 문산토의 가뭄저항 옥수수는 올바른 도구가 아니다. 환경적 대안을 위한 시민과 과학자들 모임의 최근 연구는 가뭄저항 종자가 농민의 물 사용을 줄이는 데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전자 조작된 가뭄 저항성은 단지 완화된 가뭄조건에서만 작용할 뿐이고, 오히려 유기농법이 가뭄이 든 해의 수확량을 96%까지 높인다는 걸 밝혔다.

## 통일벼는 왜 사라졌을까

농약과 제초제가 존재하기 이전의 농법은 풀과 벌레가 사는 논에 벼가 들어가 공생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논에 물을 대면 수중생물들과 풀, 벼 모두가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고, 이와 더불어 벼는 홀로 설 준비를 시작한다. 벼 스스로의 힘이 약할 때는 농민이 손을 거들어 풀의 성장 억제를 돕기도 하지만, 농사를 여러 해 이어갈수록 벼의 자생력이 더욱 강력해진다고 한다.<sup>50)</sup>

논에는 개구리, 메뚜기, 거미 등이 살고, 새, 나비, 잠자리 등이 날아오게 된다. 여름의 절정과 더불어 벼는 풀을 이기며 자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이삭을 품고 다음 생명을 준비한다. 꽃이 피고, 이삭이 결실을 맺으면 사람에게 수확물을 내어주고 다시 봄을 맞을 때까지 동면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찰지고 기름진 밥은 ‘자포니카’라 불리는 종이다. 자포니카는 쌀알이 짧고 둥글면서 끈기가 있는 계열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 재배된다. ‘인디카’는 인도와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쌀알이 길고 찰기가 없다.

세계적으로 키가 작은 반왜성(半矮性) 품종의 밀과 벼가 생산성이 높다고 인정되었기에, 신품종 개량은 반왜성 유전자를 이용하면서 인디카와 자포니카 품종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1965~1966년에 걸쳐 1개의 자포니카 품종과 2개의 인디카 품종을 교배하는 이른바 3원 교배를 실시해 다수확성을 강화시킨 것이 바로 통일벼다.

그 후 통일벼는 우리나라 녹색혁명<sup>51)</sup> 성공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했

50) 가와구치 요시카즈, 최성현 옮김, 『신비한 밭에 서서』, 들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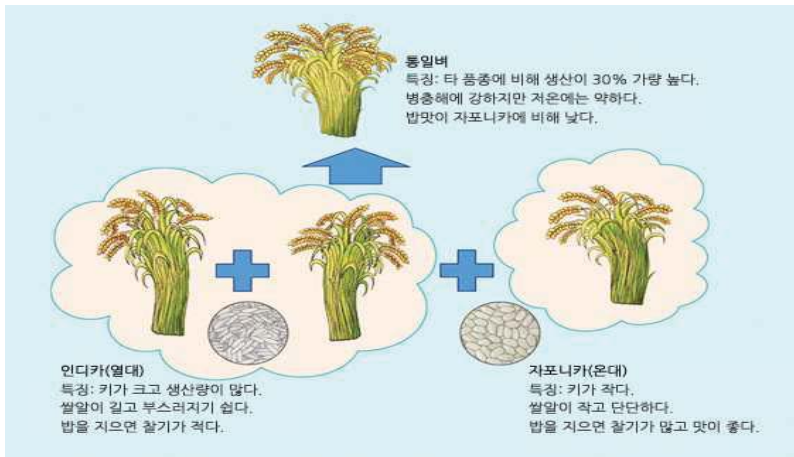
51) 녹색혁명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농업부문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리킨다. 기존의 품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다수확 품종으로 화학비료, 제초제, 살충제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으며,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명공학 기술로 소개되고 있다. 당시에 통일벼를 택한 농가는 추곡수매나 비료, 장비지원의 우선권을 얻을 수 있었고, 다수확 포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72년에 큰 냉해가 닥쳤을 때, 열대에 적응된 인디카 품종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벼는 저온에 약해서 전국적으로 한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일이 발생해,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종보다 밥맛이 없는 통일벼는 결국 1978년 보급이 중단되었고, 일부 지역에서 추곡수매용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 정부수매가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통일벼가 부침을 겪어온 것과 상관없이 보급종의 확대로 벼 재래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충청북도 괴산에서만 수백종이 생산되던 재래종 벼는 밥상에서 사라지고, 지역에서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소수 농민들을 제외하면 이제는 국립종자원 같은 곳에 남아 있는 희귀자원이 되었다.

〈그림〉 통일벼의 품종 개량 특징



출처: 동아사이언스

## 우리 종자의 현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 러시아 등 국외로 유출된 토종자원 총 4,422점을 반환받고 재래종과 야생종을 수집하여 27만2,000점을 확보하였다<sup>52)</sup>. 이것은 물론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에서 을;기 토종 종자를 더 가까이에서 심고 먹으면서 피부 직접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 보존하고 있는 종자에 대해 신품종이나 유전자조작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을 가진 기업들만이 접근이 자유롭다. 이처럼 특허 및 종자를 등록한 기업이나 대학, 국가기관과 같은 곳의 육종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대신, 농민들이 현지에서 종자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나 보호 장치는 없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이래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조약이 보호한다는 종자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국립종자원의 설명에 따르면, “품종보호란 품종을 등록한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sup>53)</sup>

정부가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대상은 일정정도 규모와 시설을 갖춘 기업과 연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과 같이 영리외의 목적에서 자가소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등록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자가채종하는 것이나, 자가소비 분 이외에 여분의 생산량을 판매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즉, 토종씨앗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년 씨앗을 받는 행위, 이웃에게 판매하거나 씨앗 나눔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대대로 농사지으며 씨앗을 받아온 농민들이 종자를 등록하는 것이 익숙할 리 없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 무분별하게 종자를

---

52) 「농촌진흥일보」. 2010. 6. 17.

53) 국립종자원 [http://www.seed.go.kr/protection/system/apply\\_03.jsp](http://www.seed.go.kr/protection/system/apply_03.jsp)

사용하는 농민들로부터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보호’ 하겠다는 논리가 된다.

## 종자를 팔아먹은 사람들, 주권 없는 우리의 종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세계 6위의 종자보유국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물자원부족국가라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위치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한반도에는 자생종이 10만 여 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2011년 38,000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생물자원 보유에 대한 근거를 주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한반도 생물자원은 19세기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반출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천여 종에 달한다. 반출된 자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제적 합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개량하여 특허 또는 신품종으로 등록한 종자들에 대해서는 취소 등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유에 대한 근거 역시 문제가 된다.

국가와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2011년 6월 생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제주 자생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을 분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하려는 것은 붉가시나무를 비롯한 450여 종에서 추출한 것이다.<sup>54)</sup> 그런데 이것들은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지금처럼 생물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생물자원의 보존 보다는 기업들의 생물자원 선점과 자원이용권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 보급종이 주종인 곡물종자를 제외하고 채소

54) 「세계일보」 2012. 12. 9.

종자는 이미 시장에 맡겨져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부채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서울 종묘는 노바티스에,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세미니스에, 청원종묘는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사카다에 넘겼다. 일본의 다끼이 종묘회사는 2001년 5월 신규법인 설립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종묘사업을 하고 있다. 이후 다국적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세미니스는 몬산토에, 노바티스는 신젠타에 통합되어 결국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1, 2차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종자기업은 현재 몬산토, 신젠타,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사카타, 다끼이로 등 총 5개이다.

종묘사업에 다국적기업이 눈독을 들이자 1998년 당시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종자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종자를 외국에 팔아먹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각계에 호소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sup>55)</sup>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다국적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종자 시장에서 다국적 자본의 독점구조는 더욱 심각해졌다. 다국적기업이 국내 채소종자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종자 연구는 대기업 종묘회사의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연구 실적을 종묘회사와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내에서 진행되는 종자연구가 다국적 기업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고, 그 결과 또한 다국적기업에 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결과는 종자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토종 유전자원과 육종 기술이 유출되고 로열티 지급 부담이 급증했으며,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등 국내기업에서 일하던 육종가들이 자발적 퇴사 혹은 해고되면서 민간육종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세

---

55) 「충청신문」 2012. 1. 10.

## 〈그림〉 국내채소종자 시장 점유율



출처 : 동부팜한농

계적인 종자강국을 추진하겠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이란 “씨앗과 같이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해서 생산농가에 판매하는 형태의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6)</sup> 종자산업의 확대란 결국 생산비가 적게 들고 땅이 넓은 제3세계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의 자본을 연결하여 자본의 거래수익을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종자라 해도 종자에 대한 특허권은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대량생산하는 과정에서 채종지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찰옥수수는 괴산군 장연면에서 시험재배되어 괴산대학찰옥수수라는 브랜드가 되었다. 그러나 개발 당시 국내기업이었던 종묘회사가 미국 다국적 종묘회사로 흡수합병되어 미국의 종묘회사로 그 권리가 넘어가면서 대학찰옥수수의 채종지는 미국이 되었다. 한 다국적 기업의 관계

56) 농림수산식품부. “Golden Seed 프로젝트 요약보고서”. 2011. 9쪽.

자는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상당수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을 늘리려고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경우로, 이 때문에 수출 총액은 증가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내 종자기업의 해외 수출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sup>57)</sup>

우리나라에 ‘우리 종자’라고 부를 수 있는 종자주권이 있을까. 국가차원에서 토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토종자원 복원, 신품종 육성, 식의약 소재 등의 웰빙 신기능성 물질 개발에 활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농업유전자원센터와 기업에 맡기는 것만으로 종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농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국가의 조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다국적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씨앗의 공급, 재배 방법,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시장에 맡겨진 상태다.

종자의 개발 및 판매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은 결국 씨앗을 직접 심어왔던 농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토종씨앗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농업 구조를 대농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일조하였다.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는 벼, 감자, 옥수수, 파프리카, 넉치, 전복 등 글로벌 수출전략형 종자 20종을 개발해서 2030년까지 종자 수출을 지금의 3,200만 달러에서 50억 달러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식량작물로 보호받던 벼, 옥수수, 감자 등 정부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업체 주도로 상용화 종자를 개발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런 조치는 정부 보급종으로 유지해 오던 기초 식량종자의 기반을 흔들어 가격 안정성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

57) 「주간동아」 2012. 10. 29.

## 제2의 몬산토를 꿈꾸는 국내기업들

국내기업인 동부팜한농은 농약회사인 한농, 가락시장 도매법인(유통회사)인 한국청과, 음료수 가공업체인 가야, 그리고 종자회사인 몬산토코리아를 인수하고, 친환경방제업체인 세실을 합병하면서 간척지인 화옹단지와 새만금에 대규모 농업회사로 등록하였다.<sup>58)</sup> 종자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하는 최초의 국내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 기업이 파프리카, 토마토를 대량 생산할 준비를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거나 자살하게 되었던 인도의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계열사의 농약, 비료, 종자를 이용해 대량생산하고, 도매 유통망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면 소규모 농민들이 설 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종자기업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한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면 구성원들이 당연히 그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전통적인 살림의 방식이 대를 이어 전승되었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본의 힘은 한 지역의 습속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것이 다반사였다. 제2의 몬산토와 같은 기업의 등장을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 자본과 기업이 만드는 농업, 우리의 밥상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농민들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수확량을 거두지만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손에 들어오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서 대부분 돈을 주고 사야하는 살림살이에서 생산과 소비의 가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

58) 「레디앙」 2012. 9. 14.

농민은 농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숙련된 육종가였다. 육종은 가장 맛 좋고 풍토에 잘 적응한 종자를 키우고 선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산업화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민들은 기업에서 판매하는 종자를 사기 시작하고, 종자에 대한 권리에서 점점 멀어졌다.

다음은 종자회사의 안내 문구다.

“종자는 살아있는 생물로 파종시기, 기후, 토질, 재배방법, 관리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재배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갑작스러운 이상기후 등의 불량환경 조건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

종자회사는 종자는 등록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배가 잘 안 돼서 피해를 입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농민은 종자에 대한 권리는 잃은 채 잘 지어야 종자 값이라도 건질 수 있는 재배책임만을 지게 되었다.

농민이 하던 역할이 육종자와 유통업자로 분해되어, 종자기술은 지적재산권이 되고 이익은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재배 노동자로 전락해 세계의 주변부로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 집중되는 자본을 제외하고 남는 것만이 농업의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드러나는 문제들

오랜 세월 종자 문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종자상을 통해 보급, 판매되는 개량종자가 확대되면서 불량종자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원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이 교잡되어 파는 종자에서 종종 열성형질이 튀어나오곤 했다. 정부에서

확대 보급하고 있는 종자에서도 불량종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것에 대해 정부가 생산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빈발해지고 있다.<sup>59)</sup> 1990년대부터 언론에서는 종자회사에서 구입한 부실종자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일부 종자가격을 보상하기도 했으나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언론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종묘상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도 했으나 농민의 재배기술을 원인으로 들기도 했다.<sup>60)</sup>

종묘상에서 씨앗을 사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은 씨앗에 관한 정보, 농사법, 가격결정을 모두 종묘상에게 의존해야 했다. 종묘상마다 가격이 다른 데다 병충해 처리와 생육처리를 했다고 1상자에 7천 원 하는 배추묘를 1만원 주고 사기도 했다.<sup>61)</sup>

그러나 불량종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재배한 농민이 떠안아야 했다. 농민들은 구입처에다 종자 생산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여러 씨앗이 교잡된 개량종을 만들어 실패한 데 대해 종묘상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씨앗을 육종하고 갈무리할 권리가 농민들의 손을 벗어나면서 정부나 종자기업들의 광고와 달리 종자의 안정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 “문화를 만듭니다”

- CJ

역사적으로 문화의 창조는 공생의 진화과정, 농업 1만년의 역사, 인간의 살림에 토대를 둔 공동체적 사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2년 CJ는 '문화 없이는 나라도 없다'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

59) 「한겨레」 1995. 3. 25.

60) 「매일경제」 1985. 2. 12.

61) 「사천신문」 2010. 10. 14.

의 생각을 강조하며,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인 음식·영화·음악·쇼핑·유통 등을 묶어서 식문화·콘텐츠 등 생활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문화창조기업'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마치 미국의 종자산업협회가 스스로를 새로운 종자 공급자로 선언했듯이, CJ의 슬로건처럼 시대적 조류에 민감한 기업들은 스스로를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주체로 선포하고 있다. 산업화, 시장화의 물결 속에서 종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III.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종자를 되찾는 사람들



## 종자의 권리에 대해 국제사회가 눈을 뜨다

“우리는 맥도날드나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심는 씨앗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에 반대한다.”

- 프랑스 농민동맹 페트리스 버디의 사무총장

1999년 조제 보베는 트랙터를 타고 맥도날드 한복판으로 돌진했다. 그는 미국이 통상압력을 가해 프랑스 치즈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출처 없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맥도날드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다. 그에 따르면 글로벌한 먹거리는 결코 세계의 굶주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하는 자본이 인류의 안녕과 내일에 관심을 기울일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다.

1980년대 이후 생명공학 기업들은 유전자조작과 소유권을 확대하는 데 더욱 열을 올렸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자신들의 유전자원의 가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춰 세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선진국들의 생물해적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생물자원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종자주권, 농부권을 명문화하고 초국적기업의 자본을 규제할 정치적 공간으로서 국가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종자는 국가의 주권영역임을 명시함으로써 종자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선진

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유전자원을 정당한 보상 없이 소유하겠다는 주장은 적어도 국가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유전자원을 국가적 권리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이 인정하는 종자주 권은 다국적기업의 특허권을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이후에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의 국제반건조열대작물연구소가 보유한 병아리콩과 렌즈콩에 특허를 냈으며, 미국의 라이스텍은 인도의 바스마티쌀에 대한 수백 개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미국의 한 육종가는 멕시코 재래종에 특허를 내기도 했다. 특허권은 여전히 생명을 누릴 모두의 권리보다 앞서고 있다.

2001년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은 지역 및 토착사회와 농민들이 유전자원의 보전 및 개발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까지 농민권의 실현여부는 각국의 정책에 맡겨진 채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것이 개발자인 종자등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종자법체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농부권은 가장 강력한 상부구조인 지적재산권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이 자가채종에 대한 보호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62)</sup>

미국의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종자에 대한 육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농민이 자가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종자비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식물품종보호 및 종자법을 통해 자가생산을 위한 자가채종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4년에 제정된 ‘유럽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이사회 규정’을 통해 농민들의 자가채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사료작물 9종, 곡물 9종, 감자 1종 및 유지작물

---

62) 김은진, “토종씨앗의 가치와 제도적 방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간담회 자료. 2011. 11. 16.

3종에 한해서 면적 규정에 따라 소농들의 자가채종을 인정하고 있다. 소농의 기준은 92톤 미만의 생산자로 밀을 기준으로 약 40헥타르, 벼를 기준으로 약 20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가진 대상자들이다.

2012년 ‘국제식물신제품보호동맹(UPOV)’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종자를 등록한 육종자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 정책에서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한 보호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 농민들에 대한 자가채종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농민들은 태풍 속에 놓인 찻잔처럼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배분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다.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개념과 타협하게 된 국제조약들은 결국 그 권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기관도 생물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혈안이 된 것이다. 생명자원 보유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공유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종자 등록과 전통지식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 각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아 캄페시나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2011년 <소농 종자를 지키는 농민들의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발리 씨앗 선언’을 발표했다.

농민들은 씨앗을 우선적으로 농지에서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곡창, 공간, 소규모 지역내 씨앗 보존도 가능해야 한다. 현지 외 보존은 최대한 농경지에 가깝게 유지해서 농민들이 씨앗에 대한 권한, 책임, 접근성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소농들이 관리할 수 있는 농민의 씨앗 시스템을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교잡종이나 재생 불가능한 씨앗이 아니라 토착화된 씨앗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종자체계와 현지 내외의 공동 종자 보존을 유지하는 농민을 포함해서 씨앗을 생산하고 육종하는 소농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씨앗을 생산, 육종하고 새로운 품종에 적응하며 새로운 종자를 발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씨앗을 보존하는 소농들에게 세계는 의존하고 있다.

씨앗에 대한 기여를 굳이 따지자면 그 지역의 토양과 품종, 농민과 지역사회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2012년 9월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의미 있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농민과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2014년 가을까지 초안이 나올 예정인데, 농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은 곧 이 세계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데 국제적으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 인권선언이 나오면 세계 각국의 법률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쟁점은 실질적으로 종자법체계에 개입할 수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금지나 초국적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인증제도 금지조항이 합의될지 여부이다.

## 인간으로 살기 위한 권리선언, 식량주권을 위하여

*“만약에 어떤 사회가 자신들이 먹는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의존해야 할 것이다.”*

*- New Left Review, 2002*

‘땅의 사람들’인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부터 사회는 자신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세계적인 먹거리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업형 농업이 생산에 개입하면서 생산에서의 결정권은 더 이상 농민들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트랙터가 가축경운을 대신하고, 합성비료가 거름을 대신하고, 교잡종과 GMO가 농민의 육종을 대신하게 되고, 농민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농사지를 때 비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의 힘을 빌려 농사를 짓고 하늘을 도와 먹거리를 내던 농민들은 자연의 논리와는 별개로 돈의 논리를 중요하게 사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국적기업들이 제공하는 투입재와 파는 가격에 농민들의 삶이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한편 농촌에서 살아가는 생계비용은 먹거리를 제외하고는 도시와 다를 것이 없다. 농업의 가치 상실과 생계비용 증가에 따른 삶의 균열은 결국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자유무역은 관세, 쿼터, 책임수매제를 폐지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의 개념을 희석시켰고, 전 세계 10억 명의 농민들을 경쟁적인 시장으로 몰아넣었다. 소수의 복합기업인 몬산토, 듀폰, 신젠타, 다우, 바이엘 등이 농업 특허권의 대다수를 소유하게 되고, 땅, 물과 더불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지던 종자는 다국적 기업들이 선점하고자 하는 미개척 신대륙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탐험을 하는 동안에 지역 유전자원의 다양성은 파괴되었고, 세계적으로 농민들이 생산수단을 잃어버렸다.

국제적 시민사회로 통칭되던 세계에서 농민들의 독자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 농민조직이 등장하면서부터다. ‘농민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는 소농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적인 농민단체이다.

“식량주권의 6가지 핵심어는 소농, 여성농민, 지역, 생태농업, 연대, 협력이다.”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식량주권위원장

식량주권은 1996년 비아 캠페시나가 세계 식량정상회의에서 “식량주권: 굶주림 없는 미래”라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계에 알려졌다. 전 세계 빈민의 3/4이 농촌에서 살고 있으며, 농업은 생계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현실에서 농업발전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에 대해, 비아 캠페시나는 ‘농민의 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에서 답을 찾고 있다.

비아 캠페시나는 식량주권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 실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틀거리를 제시하고 있다.<sup>63)</sup> 이들은 자국의 생산 시스템을 파괴하는 힘과 싸울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자유와 권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농민들은 국가수준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농민단체인 비아 캠페시나를 결성한 이래로 국제적 행동을 지향하고 있다.

식량주권은 모든 인간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제시하면서, 농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에 건강한 먹거리의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비아 캠페시나는 토지와 종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 농민들의 권한이 침해받게 된 특수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비아 캠페시나가 제시하는 농부권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단에 대한 권리’, ‘자원 및 관련 지식에 대한 권리’, ‘유전자원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 ‘자원 이용, 보전, 관리로 인한 편익의 통제와 사용을 규정할 권리’, ‘유전자원의 사용·선택·저장·자유로운 교환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보다 구체화 된 것은 2007년 닐레니 선언을 통해 먹거리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먹거리이며, 식량제공자들의 가치, 식량체계

---

63) 비아 캠페시나 식량주권 7대원칙 참조.

의 지역화, 지역적 의사결정, 전통지식과 기술의 구축,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부터이다. 식량주권의 원칙은 국가의 역할과 정책근거, 생태농업에 대한 철학, 지역의 주체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안적 체계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이는 먹거리를 최우선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국내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소농과 생태농업의 가치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인식을 확립하고 사회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소농 공동체, 농촌지역사회, 원주민 지역사회에서 식량주권은 대규모 농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문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먹거리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다. 이는 먹거리가 통합적인 문화의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를 억압하고 전복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는 여러분의 문명사회를 모욕하는 것이다. 나는 남아시아 출신이다. 우리에게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해온 천 년의 역사가 있다. 만약 몇 세기 밖에 안되는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는 면, 담배, 사탕수수과 같은 현금작물만 생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우리 문명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잘못된 효율성의 견해를 옹호하고 있다. 실제 비용을 보면 먹거리를 수천마일 수송하는 것은 완전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에 석유가 신식민주의의 도구였다면, 식량과 종자가 현세기의 도구인 셈이다. 그래서 모든 면을 고려해 보면 식량주권은 오늘날 지배적인 사안이 되었다.

- P.V. 사티시 데칸개발공동체 의장  
/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 주

최근 들어 식량주권의 요구는 생태농업, 농민의 씨앗, 농민교육에 대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에 있었던 ‘생태농업과 농민의 씨앗에 관한 비아 캄페시나 제1차 국제회의’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생태농업이 본질적 해답이란 문제의식을 담아 ‘수린선언’을 발표했다. ‘소농의 생존이 전 사회의 생

존'이라는 태국의 생태농업 경험을 배우며, 생태농업에서 '씨앗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농민이 씨앗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씨앗을 갈무리 하는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국제적인 이러한 목소리가 더욱 강력하게 울려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아 캠페시나를 중심으로 한 식량주권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세계 농식품체계로부터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적 틀거리

주체성	지역 주체성, 생산과 소비의 연대, 여성적 주체성
대중과 지역의 자주적 권리	먹거리 기본권, 문화에 대한 권리, 농민의 씨앗에 대한 권리, 농업과 먹거리 정책에 대한 권리
중점가치	땅, 물, 종자의 생태적 회복, 생산에 대한 사회적 권한, 자본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통제
대안적 생산목표	생태농업, 소농의 다품종 생산성, 도시농업

## 씨앗을 나누고 재생산하는 씨앗도서관

국제적 씨앗운동은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 주드와 마이클 부부(Jude and Michael Fanton)에 의해 시작된 텃밭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씨드 세이버스 네트워크(Seed Savers Network)'는 씨앗을 보존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는 의미처럼 토종씨앗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홍보, 토종종자 지키기 활동, 생산자들 간의 종자 교환 조직 및 활성화, 종자센터를 통한 다양한 종자의 확보와 확산 등의 활동들을 벌이면서 확대되었다.

미국, 유럽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씨앗도서관은 지역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영역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Seed Savers Exchange)’이 만들어져 재래종 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을 펼쳐 왔으며, 1999년 설립된 ‘바질(The Bay Area Seed Interchange Library, BASIL)’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씨앗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씨앗도서관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적 독점 방식의 씨앗을 거부하고, ‘우리의 씨앗을 나누고 재생산 하는 것, 지역적으로 농민이 생산한 씨앗을 지역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45개가 운영 중이고 5개가 준비 중이며, 비교적 설립이 쉬워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은 마트나 종묘상에서 씨앗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공적영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12년 7월에 개국한 인터넷 씨앗 방송국은 미국 각지의 씨앗도서관 이야기와 농업, 텃밭농민, 종자주권 등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씨앗 보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로스엔젤레스 씨앗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들고 있다.

1. 씨앗의 다양성은 많은 사람에 의해 재배될 때 더욱 분명하게 유지된다.
2. 직접 먹거리를 재배하고 씨앗을 소유함으로써 수백 달러를 절약한다.
3. 유전자조작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씨앗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4. 고유의 향과 특성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업종보다 품미가 있다.
5. 작물은 점진적으로 토착기후와 토양에 가장 잘 적응하게 될 것이다.
6.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지역민과 어울릴 수 있다.
7. 스스로 먹거리를 기르고 씨앗을 보존하는 자립의 전통을 유지한다.
8. 영혼과 신체에 영양분을 주어, 혼란한 도시생활에 여유를 가져온다.
9. 씨앗은 조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신탁이며, 씨앗을 돌봄으로써 씨앗도서관은 우리가 신탁을 잘 보존하도록 한다.
10. 씨앗을 기르고 먹고 되돌려줌으로써, 자연의 리듬에 공명하며 우리를 돌

러싼 세상과 조응하고, 우리의 존재가 거미줄처럼 얽힌 삶의 그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

미국의 허드슨밸리 씨앗도서관은 씨앗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해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 진실하게 심어라.
- 옹기 심어라.
- 독립적으로 심어라.
- 건강하게 심어라.
- 가까운 지역의 씨앗을 심어라.
- 씨앗을 보존하라.
- 현명하게 심어라. (비싸게 사지 않고, 값싸게 팔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쾌한 기준을 제시한다.

- ‘당신의 지역 주민들을 지지하라’
- ‘당신의 모종샵을 지지하라’
- ‘씨앗을 보존하라. 씨앗을 심고, 간직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라’

영국의 전통 씨앗도서관은 영국의 유기농 운동을 50년 간 이끌어온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지구는 우리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격언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다. 텃밭을 관리하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씨앗도서관은 씨앗을 심는 기준 또한 제시한다. 핵심은 씨앗을 가져간 본인이 그것을 소비해 버리지 않고 자가채종을 이어가며 보존하는 데 있다. 씨앗도서관은 자원활동가들과 텃밭 지도사들로 운영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씨앗도서관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제주에서는 지역

토종씨앗 수집과 분양, 전통 순환농업 회복과 보급운동, 도시농업, 귀농, 소농가운동, 제주지역 식량자급 공동 모임체 구성, 100% 제주자급 사료 보급, 토종씨앗 채종포와 채종농가 늘리기, 전국 씨앗네트워크에 동참하는 운동 등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자가채종 종자를 발굴하고 씨앗을 나누며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씨앗도서관 모임이 생겨서 지역사회 씨앗보존운동을 인큐베이팅하는 주체들의 성장을 목표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씨앗에 얽힌 이야기

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씨앗을 일컫는 종자(산스크리트 Bija)란 불교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을 낳게 하는 원인의 씨앗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sup>64)</sup>.

불교에 복전(福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복을 거두는 밭이라는 뜻으로, 아라한(阿羅漢)을 복전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그들에게 공양의 종자를 뿌리고 공덕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중생이 복전인 것은 그들에게 법이라는 종자를 뿌려 선업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도 스스로를 농사짓는 사람으로 비유하여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며, 지혜는 내 멩에와 호미요 부끄러움은 괭이자 루며, 의지는 잡아매는 줄이고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다. 나는 진실로써 김을 매며 온화한 성질은 내 멩에를 벗겨 준다. 노력은 내 황소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 준다'고 말하였다. 즉, 깨달음과 그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수행과 중생을 구하려는 설법이야말로 마음과 중생을 가꾸고 기르는 진실된 농사라는 말이다.

유식학파에서는 모든 존재 현상을 낳는 원인의 씨앗을 종자라 하는데, 식물의 종자를 외종자(外種子)라고 하는 데 반해 아뢰야식(阿賴耶識)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의 종자를 내종자(內種子)라고 한다. 이 내종자란 원인을 통한 결과의 작용을 이르는 말로 일종의 관습처럼 아뢰야식 가운데 혼숙되는 것이다. 종자는 또 아뢰야식 가운데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본유종자(本有種子)가 있으며,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축적한 신흠종자(新熏種子)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자에는 유루(有漏)의 여러 현상을 일으키는 유루종자, 보리(菩提)의 원인이 되는 무루(無漏)종자의 두 가지가 있다.

---

64) 『두산백과』

## 미국, 식량주권을 위한 지역 차원의 자치법규

미국에서는 연방 법 조항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않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메인, 버몬트, 북부 캐롤라이나, 몬타나, 유타,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식량주권 조례를 채택하거나 법규를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식량주권은 생산의 권리가 다국적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규정들이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불필요하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문제의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메인 주 소속 세드워의 식량주권 조례는 현행 주법과 상관없이 지역적 통제와 주법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의 과제에 관한 규칙을 선거권자들의 발의로 채택하고 주민 1,00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재배, 생산 혹은 가공된 농산물은 여타의 연방 혹은 주법이 요구하는 등록된 절차와 상관없이 지역 먹거리를 생산, 가공, 판매, 소비하는 권리를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쿠바, 농민 참여형 농업개혁과 종자개량의 경험

*“과학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은 유기농업에서는 위험한 일이다.”*

*- 쿠바 열대농업기초연구소 벨소 콤파니오니 부소장*

2004년 세계유기농대회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농민참여형 종자개량의 사례를 내놓은 쿠바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쿠바는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농약과 비료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가뭄, 고온,

병충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씨앗을 재래종에서 발굴해낸 것이다.

“오늘날 유기농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농민들이 해온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쯤 농약과 화학비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토지는 병들고 생산성도 떨어져 우리들도 힘이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유기농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부의 공무원과 연구자들에게 ‘유기농업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해도 전혀 믿지 않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초로 유기농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들 농민입니다. 연구자는 다만 나중에 우리들의 실천을 보면서 따라온 것뿐이죠.”

농민은 과학자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가 아닌 주체로서 품종 개량의 전 공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과학자는 농업생물다양성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힐베르트레온 협동조합농장 농민들은 15계통에서 선별하여 옥종, 옥수수 신품종 개발, 다수확 품종보다 30% 이상 많은 수확량을 거두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쿠바 유기농업의 특징은 농민의 지혜를 재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바이오 농약과 미생물 비료 등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지렁이 퇴비나 돌려짓기와 같은 전통농법을 연결시켜 실천 가능한 적정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

리오스 박사는 지역농업개혁 프로그램을 보급한 사례로 농업용 음악CD를 만들어 농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농법은 현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학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쿠바의 이러한 사례는 FAO가 농가의 품종개량, 재래종 확보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쿠바는 규모화 된 협동농장 혹은 국영농장이 주축이었던 기존의 중앙집권적 제도나 생산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 먼저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들과 도시텃밭 농

부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생산 강화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둘째, 식량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기존의 관행농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는 대신 전통농업을 복원하고 과학기술 체계를 재정비하여 교육과 현장훈련을 기반으로 한 농생태학을 정립했다. 농민, 학자, 행정관료 등이 현장, 연구소, 대학, 정부부서에서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유기농업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셋째, 도시의 빈터, 텃밭을 활용하여 신선한 먹거리가 직거래 장터 이하의 가격으로 도시 좌판, 재래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었다.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토지들이 생태농업 선구자들에게 재분배되었고, 생태농업을 시행한 지 수년 만에 소농들과 도시텃밭 농부들이 식량안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농업을 이끈 사람들은 쿠바 유기농업연합 핵심 그룹으로써, ‘생태농업 등대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993년 5월 국가농업과학연구소에서 100명의 대표단과 40명의 해외인사의 참여로 창설되어, 2개 지자체의 3개 소농생산협동조합, 150농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농업 등대 프로젝트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독려하며 쿠바 생태농업의 기틀을 만들어나갔다.

#### 〈생태농업 등대 프로젝트의 원칙〉

-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농업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적 인식을 발전시킬 것, 동시에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하고 가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것
- 지역·생태농업적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것, 그리고 농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과 훈련을 증진시킬 것
- 생태농업적 연구 및 교육과 기반이 되어온 전통농업체계에 관한 원칙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촉진할 것
- 농민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이며 자연적인 농업생산체계 수립을 증진시킬 것

- 해외 기관들과 경험을 교환하는 것을 장려할 것(라틴아메리카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중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발전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
- 유기농산물 판매홍보의 중요성을 증진하고 공표할 것

## 인도, 전통 지식으로 특허에 대항하는 노력

인도는 녹색혁명의 폐해를 복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토종씨앗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나브다나 센터는 정보구축, 인프라, 전통농법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소농조직과 유기적 연결을 담당하였다. 센터는 타밀-나두주 안에 있는 여러 지역 NGO와 협동하는 것으로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농부가 될 마을의 학생들에게 토종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자 어린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생물다양성 대회를 열고,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토종과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외양간두엄과 지렁이두엄을 활용하는 비법, 생물비료, 님 씨앗 등의 자재를 제공하고, 토종을 유기재배로 기르는 비법, 식물에서 추출한 자재로 생물농약을 만들고 자연스레 병해충을 방제하는 기술, 두엄 만드는 기술을 훈련시켰다. 품종의 특성과 수확량 등 상세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된 교재로 만들고, 정기 간행물, 서적, 포스터, 필름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센터의 역할이었다.

또한 센터에서는 녹색혁명 이전 토종종자의 유익성을 보고하는 농민참여 실습, 그리고 NGO, 학생, 교사,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학교를 통해서는 글짓기나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현재 유기농업은 약 125개 마을에서 약 3천 명의 농민들에게 퍼졌으며, 채소밭 세대는 800가구 이상이 되었고 이러한 농가들로 이루어진 37개

소농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인도의 16개 주에 54개의 지역사회 씨앗은행이 설립되어 전국에서 수집된 3천여 종의 벼 종자를 비롯해 밀과 수백여 종의 곡물 종자를 관리·보존하고 있다.<sup>65)</sup> 농민들은 수확 후에 종자로 되갚거나, 혹은 다른 농민들에게 종자를 나눠줌으로서 토종종자를 확산시키고, 토종종자를 받아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민의 수확물에 대해 10%의 이윤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인도 전통담당부서(Department of Ayurveda, Yoga & Naturopathy, Unani, Siddha and Homeopathy)와 과학산업연구위원회(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는 전래되어 오는 고대 문헌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지식 디지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2006년 3월 영국 발명가가 은행나무 추출물 Apocinin과 함께 Gingerol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폐의 과도한 점액분비를 완화시킬 수 있음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였는데, 인도 전통담당부서와 과학산업연구위원회는 명세서에 기술된 Zingiber Officinale가 인도에서 흔히 'adrak'으로 불리는 생강의 학명으로 인도에서는 기침과 감기의 치료에 수백 년간 사용해 왔음이 전통 문헌인 아유르베다와 유나니 등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도 전통지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근거로 언론에 설명하였다.<sup>66)</sup>

영국 특허청은 전통지식 디지털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 기술지식을 검색한 후 인도의 전통지식을 고려하여 특허 거절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인도의 전통지식과 관련된 분쟁 사례로, 강황(심황), 님나무 오일, 바스마티 라이스, Nap Hal Wheat 등이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

---

65) K. Vijayalakshmi, S. Arumugasamy and A.V. Balasubramanian, "Organic Farming and Indigenous Seed Conservation Experiences from Tamil Nadu, India", Leisa India, Centre for Indian Knowledge Systems, June 2007.

66)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Science and Technology, November 1, 2012.

스를 통해 2011년 4월까지 224건의 특허에서 인도 전통지식이 관련되어 있음을 적발하였다. 인도는 자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대응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 작은 승리

캐나다 농민 퍼시 슈마이저는 몬산토를 대변하는 19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무모한 소송을 시작했다. 2001년부터 세 차례의 재판에서 슈마이저가 몬산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판결로 인해 슈마이저는 수십 년 간 재배해 왔던 자신의 씨앗을 폐기하고 시장을 통해 새로 종자를 사야 되었다. 법원은 슈마이저가 상업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식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되었다.

슈마이저는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몬산토가 농장에서 GMO 카놀라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GMO 카놀라가 슈마이저의 밭을 ‘오염’ 시켰음을 인정받았다. 슈마이저는 수십 년간 씨앗을 받아 농사지어온 자신의 행위가 너무나 정당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소송을 했던 것이다. 2008년 3월 몬산토는 슈마이저에게 GMO 카놀라 제거비용을 합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슈마이저는 자신의 작은 승리를 세상에 알려서 다른 농민들이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숨죽이지 않기를 바랐다. 이제 씨앗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농민들의 싸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 풍요의 종말을 앞당기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풍요가 무한정 계속되리라는 열망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좌절되고 있다. 우울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그야말로 지구 종말에 책임을 느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10월 세계자연보호기금이 발행한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이미 지구의 한계를 25%나 넘어섰다.

산업화 이래 지속되어 온 예외적인 풍요가 이제 곧 종말에 임박한 징후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석유정점을 돌파한 연료부족이다. 2010년 석유생산이 정점에 달하고, 북아메리카의 천연가스 생산이 하강국면에 이르면서 석유 의존적인 농업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끊임없는 가격상승에 휩싸이다가 에너지발 식량위기를 겪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이다. 현상적으로는 수십 년에 걸쳐 지구의 온도가 2~3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먹거리 생산의 입장에서 가뭄, 잦은 비, 태풍, 냉해 등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면서 1년 지은 농사의 수확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 나라, 한 지역이 단작화 되어 있다면 기상이변과 맞물려 실패가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 또한 특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농민의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던 농촌인구가 2012년 300만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의 40%를 차지하는 계층이 되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농민층이 몰락하고 있다. 에너지 가용량이 한계에 달하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던 전통농업 지식들이 다시 복권되어야 하는데, 그때엔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멸종될 처지다.

지구촌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개념은 1987년 유엔에서

채택된 브루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된 후 세계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과 같이 현 세대도 모자라서 다음 세대의 자원까지 아낌없이 쓰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오늘 만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했던 농민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씨앗을 써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세계가 필요하다.

## 국내 토종씨앗 보존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토종씨앗 보존 운동을 이어가는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있다. 국내에서 토종씨앗 보유, 채종포 운영, 토종씨앗 나눔, 교환, 지역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민우회생협은 토종씨앗 운동이 생명을 잉태하고 부양하는 여성의 역할과 결맞아 내부적으로도 반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sup>67)</sup>

“여성농민들의 재배현황이 열악하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토종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처음에 발일을 도와볼까 했는데, 언니들도 우리가 가니까 발을 찾으셨다. 그래서 자주 가보자고 결정하고, 채종포를 공동으로 경작하자는 기획을 했다.”

여성민우회생협 김자현 이사장은 매달 직접 일을 해보며, 잡곡농사를 왜 안 짓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한 가지 잡곡이라도 먹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천여농을 알리기 위해 토종이 아니라 해도 옥수수, 감자를 강원도 특산물로 받아서 판매하기도 했다. 생산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

---

67) 행복중심여성민우회생협 김자현 이사장. “씨앗으로부터” 프로젝트 인터뷰. 모심과살림 연구소. 2013. 1. 23.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 흥천 공동 채종포에서 기장, 수수 농사가 잘 되었다. 토종이 장기적으로 생활재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씨앗 채종의 역할을 넘어서 소포장이라도 조합원들에게 팔릴 수 있었으면 한다.”

사업 첫해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많은 지역과 여성 농민회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서 새로운 연대의 방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아 캠페시나를 통한 국제연대활동에 참여해 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특히 종 다양성위원회 활동을 통해 씨앗에 주목하였다. 여성농민이 농업 활동에서 담당하는 역할 중 씨앗을 갈무리하고 보관하며 재파종해온 역사와 맞물려, 종자를 지키는 활동이야말로 여성농민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파악했다.<sup>68)</sup>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되면서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전통적 기술, 문화보존이 기업에 잠식당했다. 토종씨앗을 통해 여성농민 고유의 권리,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농사지으며,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토종씨앗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 유전자조작 옥수수전분당 수입에 반대하며 토종 옥수수로 안전한 먹거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와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을 통해 토종옥수수를 심고, 수확해서 만원의 행복 회원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했다. 이때 생산된 옥수수를 소비자 1,000여 명이 전량 구매할 덕분에 토종씨앗 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08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토종씨앗을 보급하는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은 흥천여성농민회와 여성민우회생협이 채종포 협약식을 맺어 공동으로 채종포를 운영하고 경작을 함께하며 연대와 협력의 영역

---

68)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국장. “씨앗으로부터” 프로젝트 인터뷰. 모심과살림 연구소. 2013. 1. 14.

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민회로 구성된 조직 특성상 잡곡 중심의 씨앗을 보유하고 있으며, 된장, 두부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각종 콩류와 차, 빵튀기 등으로 활용되는 옥수수 씨앗을 많이 심고 있다. 2012년에는 채소 꾸러미에 들어가는 시금치, 오이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이 토종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과 다르게 간다. 종자산업법, GMO 유출은 이미 빨간불 신호를 넘어서다. 급격한 기후변화 또한 생산을 어렵게 한다. 사람들의 관심은 많지만 직접적 후원이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다. ‘만원의 행복’ 과 같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부터 채종포를 운영하는 데 이르기까지 토종농사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확대되고, 토종씨앗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신지연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씨앗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생산에 대한 이해와 제도 변화를 위한 공분으로 확산되길 희망했다.

한살림은 경북 울진, 충남 당진 아산, 충북 청주, 경기 강화, 전북 부안에서 개인 혹은 공동체 단위로 유기농업과 더불어 토종농사를 짓는 생산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1994년부터 유기농사를 짓기 시작한 솔피농장은 2012년 현재 15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찹쌀, 토마토, 고추, 옥수수 등 10여 가지 토종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들을 통해 건대추, 솔부추, 한지형 마늘, 노각오이, 조선오이, 풋고추, 중파, 순무, 생강 등이 한살림 토종물품으로 공급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환경운동단체로서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지구의 벗과 비아 캠페시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식량주권운동,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함께했다.<sup>69)</sup>

“시민들에게 GMO를 표시하자고 문제를 알리며 먹으면 안된다고 해야 하는데 업체로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뭘 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전여농이 토종종자 보존과 채종포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전여농에서 하던 채종포를 알리기 위해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했다. 토종종자 지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시민이 받는 캠페인이다. 2008년 옥수수, 2009년 콩, 2010년 수수를 진행했다. 나름의 사업성도 가져가면서 시민들이 좋아했다. 토종종자 보는 것도 희귀했고 맛도 달랐다. 그 다음은 내가 심어보고 싶다는 단계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서 느낀 나름의 자부심 그런 것은 시민들과 함께하면 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가 함께 심으려면 종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토종씨앗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다.<sup>70)</sup> 박물관은 토종씨앗을 연구하는 연구소이며, 아이들에게 토종씨앗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서, 농민들에게는 토종씨앗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박물관을 토종씨앗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씨드림은 토종 전문가인 안완식 박사가 대표로 활동하는 온라인상의 단체로서 연 1~2회 모임을 진행하며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연두농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토종연구회, 흙살림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1)</sup> ‘토종과 전통농업으로 생명을 지키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토종씨앗 나눔, 정보 교환 및 토론, 농가 실태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씨드림에서는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

69) “생명농업과 종자문제 연구 기획모임” 2012. 4. 23.

70) 환경운동연합 생명활동국 최준호 국장. “씨앗으로부터” 프로젝트 인터뷰. 모심과살림 연구소. 2012. 11. 12.

71) 토종종자 모임 씨드림 <http://cafe.daum.net/seedream/>

성농민회총연합, 흙살림 등이 종자를 분양받아 각각 1000여종의 토종 씨앗을 보유하여 재배하고 있다.

흙살림은 유기종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전통농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토종씨앗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한다.<sup>72)</sup>

“외국모델을 참조해야 할지, 우리 여건에 맞춰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이다. 농학 전공을 기반으로 과학적 체계를 갖추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외국 사례, 인적 교류, 자료 검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흙살림은 2007년부터 토종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21종의 토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민참여를 강조해왔지만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토종씨앗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어렵다고 했다.

“농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종자가 전문가에 의해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GMO는 특수한 전문가만 유지시킬 수 있는 체계이다. 토종이 글로벌 푸드에 반하는 하나의 체계로 정착되길 바란다. 작고 다양한 체계로서 토종농사를 짓는 가족농이 유지될 수 있다면 GMO의 수량이 높아진다고 편입되지 않을 것이다. 외풍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의 역량이 커져야 한다.”

흙살림 윤성희 소장은 토종씨앗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개별단체들이 토종잡곡 섞어먹기와 같이 공동의 소비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규모의 단체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특성이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삶의 터전인 지역으로부터 세계 식량체계로부터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목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

72) 흙살림 윤성희 소장. “씨앗으로부터” 프로젝트 인터뷰. 모심과살림연구소. 2012. 11. 20.

지역사회의 토종을 발굴하는 것은, 잊었던 농법을 되살리고 입맛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찾아가는 길이다. 농민, 소비자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연계하여 법·제도 개편, 토착지식 체계화, 생태농업 교육 등이 일상이 되어, GMO가 증가하는 먹거리 재앙이 휩쓸 수 없도록 튼튼히 짜여진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생명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나가는 것이 토종종자를 살리는 길이자 생명농업을 지탱하는 길이며 우리의 삶과 문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역의 종자를 자가채종하여 지키고 교환하는 ‘지역종자네트워크(Local Seed Network)’ 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 이후 씨앗도서관을 고민하는 주체들의 모임이 시작되어 지역에서 보다 확대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sup>73)</sup>

## 씨앗의 지속가능한 순환을 위하여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표어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회자되지만 세계의 농업방식을 통째로 규정하는 ‘악마의 멧돌’ 같은 구심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답은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지혜를 찾아가는 데 있을 것이다. 지역은 토양, 바람, 물, 태양의 조건이 저마다 다르며, 같은 종자라도 다른 모양으로 자란다. 그야말로 생물다양성의 원천은 이토록 지역마다 섬세한 차이가 있는 자연과의 공감을 통해 인간들의 삶과 더불어 존재해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2년부터 세계농업유산 프로젝트를 착수해서 전

---

73) 씨앗도서관 <http://cafe.daum.net/nativeseednetwork>

통농업 보존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칠레 남부 칠로에 제도는 우이체 족이 구전으로 전해온 농법을 보유하고 200여 가지 감자의 원종을 보존하고 있고, 필리핀 이푸가오족의 다랑논도 20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중국은 2010년 벼논양어를 지속하는 하니족 다랑논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 또한 인도는 전통농법과 더불어 벼, 조, 콩, 약용식물의 품종을 보존하고 있는 오리사 주, 님나무 잎으로 곡류를 보존하는 마하라슈트라 주, 바나나 줄기로 만든 파이프를 관개하는 안드라프라데시 등의 지역을 세계농업유산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전통적인 생태농법이 현대에도 답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무턱대고 과거가 현재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지혜의 기반이 인간과 자연이 수세기에 걸쳐서 공진화해온 산물이라는 점이다. 2008년 발표된 ‘개발을 위한 농업과학과 기술 국제 평가’에 따르면, 현대에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전통적인 지역의 지혜와 근대적 과학 지식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74)</sup>

최근 과학계는 녹색혁명의 이론적 기반이었던 요소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카오스적인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복잡계론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비춰보면 하나의 특성을 발현시키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는 기존의 가설보다는 유전자는 여러 수준에서 여러 가지 연결을 통해 작동한다는 생명계 본연의 복잡성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생물종은 식물을 따라 이동한다. 외래 식물을 들여오면 낯선 곤충 역시 함께 등장한다. 한살림의 홍진희 생산자에 따르면 토종종자를 심으면 토착 천적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고, 토착화 과정에서 외래 해충의 침입 우려가 적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하였다고 한다.<sup>75)</sup> 인간, 토양, 벌

---

74)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Synthesis Report, IAASTD, 2009.

75) “생명농업과 종자문제 연구 기획모임”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2시 한살림 서울 4층 대회의실.

레의 관계에 대해 규명되지 못했던 관찰의 결과들은 이렇게 축적되고 지역에서 최적화된 기술이 다시금 과학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고 문화를 형성해 온 원리와 같이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이 본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통해 인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 농민, 도시텃밭 농부들이 되살리는 지역사회

우리에게 농사의 시작인 씨앗이 없다면 결국 기존의 종자산업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대대로 살아온 씨앗을 복원하고 살린다는 의미는 오래된 씨앗을 찾아서 보존한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씨앗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체계를 만드는 것, 여기에 토종씨앗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들이 판매하는 1회성 종자가 아니라 매년 자기가 심은 씨앗을 갈무리해서 우리 지역의 자가채종 종자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미이다. 토종씨앗은 이미 상품화 되어 있는 특용작물을 제외하고는 정책 지원도 거의 전무할 뿐더러 대다수 전업농들이 농사짓는 방식과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

자급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가족농과 여성농민들이 주로 토종씨앗을 담은 텃밭을 가꾸어 왔으며, 요즘은 도시텃밭 농민들이 새롭게 토종씨앗을 보존하는데 참여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 속에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토종씨앗 생산자들은 마을,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삶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씨앗과 먹거리의 자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지역에서 토종씨앗을 살리는 농민, 도시텃밭농민들이 나설 때다.

개별단체의 각개약진이 아니라 지역에서 토종씨앗을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전문가, 지자체가 우리 지역의 종자를 보존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종씨앗 보유자는 씨앗을 지켜가는 주체이며 지역의 문화적 보고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농민들과 현장 참여형 개량연구를 추진하거나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육종 발굴, 기술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 농산물을 이용하고 먹음으로서 지역 생산자들과 두터운 관계를 맺으면서 토종종자가 재생산 되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 연로한 토종씨앗 보유자에 대한 권리를 지정하여 토종씨앗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채종포, 씨앗보급소(혹은 씨앗도서관, 씨앗은행), 소비자 체험, 토종 농산물 판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 육성 등 미래지향적 실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에서는 도시텃밭 농민들이 토종씨앗을 심고 씨앗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는 2012년 제주에서의 경험과 같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조례는 토종씨앗 보유자를 지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해 토종씨앗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민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농촌의 농민, 도시의 텃밭농민들과 더불어 토종씨앗을 살리고 보존하고 나누는 활동들은 생명의 근본인 씨앗에 대한 기본권을 되찾고 살림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자 아래로부터 새로운 공공영역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김은진. “토종씨앗의 가치와 제도적 방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간담회 자료. 2011.
- 김한승. “푸드 스토리”. 네이버캐스트. 2011.
- 김흥주 외. “먹거리 위험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SSK먹거리지속가능성사업단. 2012.
- 배수원. 『우리 역사를 바꾼 12가지 씨앗 이야기』. 작가정신. 2006.
- 변현단.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약이 되는 잡초음식』. 들녘. 2011.
- 안승모. “두류재배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공연구회지 19권 2호. 2002.
- 이원종이소영. 『영혼의식탁』. 청림라이프. 2012.
- 임영빈. 『토종을 찾아서: 한국의 채소 재래종』. 한국토종연구회. 2008.
- 정옥식.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충남리포트 제72호 2012.
- 홍준의 외.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1.
- 가와구치 요시카즈, 최성현 옮김. 『신비한 밭에 서서』. 들녘. 2004.
- 와시타니 이즈미, 김창원 옮김. 『씨앗은 어디에서 왔을까?』. 진선출판사. 2006.
- F.H. 킹, 광민영 옮김. 『4천년의 농부』. 들녘. 2006.
- 오바라 히데오, 강금희 옮김. 『생물다양성』. 뉴턴코리아. 2011.
- 요시다 타로. 『농업이 문명을 움직인다』. 들녘. 2011.
- 조나단 실버타운, 진선미 옮김. 『씨앗의 자연사』. 양문. 2010.
- 조셉 젠킨스, 이재성 옮김. 『똥 살리기 땅 살리기』. 녹색평론사. 1999.
- 잭 클로펜버그, 허남혁 옮김. 『농업생명공학의 정치경제』. 나남. 2007.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양희승 옮김. 『오래된 미래』. 중앙북스. 2012.

#### 기타자료

- 『내셔널지오그래픽』
- 『두산백과사전』
- 『디지털제주문화대전』
- 『미술대사전』
- 『시사용어사전』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토종씨앗 워크숍 자료집』
-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세시풍속사전』

『흙살림 정보』

『농촌진흥일보』

『레디앙』

『매일경제』

『MK뉴스』

『사천신문』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주간동아』

『주간조선』

『충청신문』

『한겨레』

국립종자원 [http://www.seed.go.kr/protection/system/apply\\_03.jsp](http://www.seed.go.kr/protection/system/apply_03.jsp)

씨앗도서관 <http://cafe.daum.net/nativeseednetwork>

토종종자모임 씨드림 <http://cafe.daum.net/seedream>

## 외국문헌

Altieri, M.A. and C.I. Nicholls, "Agroecology and the search for a truly sustainable agri-culture", UNEP Basic Textbooks for Environmental Training, UNEP-ROLAC, Mexico D.F., 2005.

Human Rights Council,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 2012.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Executive Summary of the Synthesis Report, IAASTD, 2009.

José Esquinas-Alcázar,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O, August 2002.

K. Vijayalakshmi, S. Arumugasamy and A.V. Balasubramanian, "Organic Farming and Indigenous Seed Conservation Experiences from Tamil Nadu, India", Leisa India, Centre for Indian Knowledge Systems, June 2007.

Steele, Leonard, "The hybrid corn industry in the Unites States", In D. B. Walden(ed.),

Nutritional Quality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Mt. Kisco, NY: Futura, 1978.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Science and Technology, November 1, 2012.

## 연구기획모임 참여자

박명익 (한살림 생산자)  
이도훈 (한살림 생산자)  
홍진희 (한살림 생산자)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생명활동국 국장)  
김훈기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정봉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실무자)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하만조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 면접자 및 면접 일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2013.1.14  
김자현 (행복중심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2013.1.23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생명활동국 국장) 2012.11.12  
윤성희 (흙살림 소장) 2012.11.20



## 부록: 참고자료

- | 비아 캠페시나 식량주권 7대 원칙
- | 생태농업과 농민의 종자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 선언문
- |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 비아 캠페시나 식량주권 7대 원칙

### 1. 먹거리: 인간의 기본권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를 양과 질이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각국은 먹거리에 대한 접근이 헌법적 권리이며,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이를 우선적인 분야로 발전시키도록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 2. 농지개혁

진정한 농지개혁은 무농토 농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그들이 일구는 땅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부여하고, 지역에 본디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땅에 대한 권리는 성, 종교, 인종, 사회계급 혹은 이데올로기의 기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땅은 그것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 3. 자연자원 보호

식량주권은 지속적인 자연자원 특히 땅, 물, 종자, 가축사육의 관리와 사용을 수반한다.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 자연자원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 수행권을 가져야 하며, 제한적인 지적 재산권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오직 토지 보유권, 건강한 토양, 농약 사용 감소를 보장하는 공정한 경제적 기반으로 완성될 수 있다.

#### 4. 먹거리 무역 재편

먹거리는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양자원이며, 이차적으로 거래 품목이 될 뿐이다. 국가 농업정책은 자국의 소비와 식량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먹거리 수입은 지역 생산을 대체하지 않아야 하며, 가격을 하락시켜서도 안 된다.

#### 5. 굶주림의 세계화 증식

식량주권은 국제기구와 투기자본에 의해 훼손된다. 농업정책을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통제 증가는 WTO, 세계은행,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경제정책에 의해 지원되어 왔다.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과세, 절대적으로 강화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행동규약이 이에 따라 요청된다.

#### 6. 사회적 평화

인간은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먹거리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농촌에서 빈곤과 주변화의 상승 수준, 이와 더불어 소수민족들과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 확대는 불평등과 절망 상황을 악화시킨다. 끊임없는 이농, 강제 도시화, 소농에 대한 억압과 인종차별 사건 증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7. 민주적 통제

소농들은 모든 수준에서 농업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유엔과 관련 조직들은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민주적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와 열려있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들이 경제-정치-사회적 삶에서 좋은 정치, 책임성, 동등한 참여의 기초를 만들고,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농촌 여성은 특별히 먹거리와 농촌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 생태농업과 농민의 종자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의 선언문

2012년 11월 6일-12일 / 태국 수린

비아 캄페시나 지역 회원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국제대표단들이 아시아 태국 수린에 모여 생태농업과 종자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생태농업과 종자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농업과 종자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라는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회의 장소로 태국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태국에서 소농들에 의해서 녹색혁명 모델에서 생태농업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대표단들은 "소농의 생존이 전 사회의 생존"이라는 가치로 성장하는 생태농업적 농민운동을 지원할 것이다. 국제 대표단들은 이 회의에 참여하여 소농형 농생태학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대표단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한 후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태농업이 식량주권의 토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농업이 기업이 만드는 투입재에 의존한다면, 식량과 토지의 상품화와 투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기술의 영향이 어머니 지구를 파괴한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식량주권은 실현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 등 생태농업적 농업을 지칭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으나, 비아 캄페시나는 그 이름이나 꼬리표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비아 캄페시나 운동이 바라는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인 핵심을 분명히 하려 한다. 비아 캄페시나가 생각하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농민의 농업은 전통적인 소농농법을 회복하고 생태적 방법들을 새롭게 혁신하며, 땅, 종자와 더불어 사회적·성적 형평성을 통제하고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관행 농민들을 환영한다.

화학적 투입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봉건적 토지 소유는 생태농업이라 할 수 없다. 여성들의 의사결정력 없이 남성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농장이거나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작업량이 많다면, 이것 역시 생태농업적이지 않다. 단작화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방식인 "유기농" 프로그램 (예를 들어 치아파스 유기농산물)과 같이 비싼 화학투입재를 비싼 유기투입재로 대체하는 유기농업도 비아 캄페시나는 강력하게 거부한다.

지난 4년 동안 비아 캄페시나의 경험, 실천과 성찰은 생태농업이야말로 식량 주권과 민중의 주권을 건설하는 데 전략적 부분임을 증명한다.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와 위기에 생태농업이 전 지구적 해결방안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먼저, 소농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며 생태농업과 다양성을 통해서 식량위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농기업 체계가 더 생산적이라고 널리 알려진 통념과는 달리, 생태농업이 단작화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높고, 더 건강하며 영양이 더 풍부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둘째, 생태농업은 환경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농의 농업은 생태농업과 다양성으로 지구를 식혀 토양에 탄소를 유지시키고, 소농과 가족농에게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에 적응할 자원들을 제공하는 이중효과가 있다. 생태농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체계 변화의 핵심인 석유 의존적 에너지와 농업의 관계망을 변화시킨다.

셋째, 생태농업은 공공선과 집단성을 지지한다. 농민과 도시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창조할 뿐 아니라 먹거리와 민중을 위한 주권의 중심요소로써 생태농업은 땅, 물, 종자와 지식이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자리매김 하여 민중의 유산으로써 되찾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생태농업을 통해서 우리는 지배적인 식량생산모델을 전환시킬 것이다. 농업 생태계를 회복시키며, 자연과 사회의 신진대사 기능을 다시금 자리매김 하며, 인간을 먹이기 위한 농산물을 수확하게 된다. 필리핀의 농민들은 이를 "경제를 위해, 건강을 위해, 자연을 위해"라고 말한다.

소농과 가족농인 우리에게 생태농업은 또한 초국적 기업과 지배적인 농산물 수출 모델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현재의 농업 및 금융자본으로부터 기술적, 경제적 자율성이 없으면 기업들에 의해 구축된 억압적 구조로부터 우리 농민들은 결코 해방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농장 노동

자들이나 다른 농업 노동자들의 상황에 비추어 봐도 이 노동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본에 종속되게 된다. 그러므로 생태농업은 새롭게 형평성 있는 사회 체계에서, 자본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사회정의의 건설하는 핵심이 된다.

생태농업은 민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개혁 투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짐바브웨에서 무토지 농민들은 토지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고,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받은 농민들은 농업을 지키고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신들의 가족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농업과 더불어 농지개혁은 소농과 가족농들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가 땅이며, 민중을 먹여 살린다"와 같이 확신에 차게 되었다.

우리의 동료인 인도 농민들에 따르면 1995년 이후 27만 5천명의 농민들이 자살했는데 그 원인이 공업적 투입재 의존으로 인한 '부채의 덫'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새로운 생태농업 운동 방식이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수천 농민들이 마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북돋으며, 더 나은 삶과 더불어 농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무예산 자연농법 운동은 인도 농촌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었다.

유럽에서 경제 및 금융위기는 생태농업의 잠재력에도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소농운동의 제안으로부터 시장을 재지역화하고 화석 연료에 덜 의존하는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며, 특히 동유럽에서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돌아가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생태농업을 통하여 식량주권으로 향하는 농업개혁과 시장규제는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낮은 가격으로 고통받는 유럽과 미국의 농민들에게 또한 하나의 대안이다.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수 년 동안 녹색혁명을 도입하도록 아그라(아프리카 녹색혁명 연대)의 공격을 받아온 말리의 소농과 가족농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태농업 생산 방식이 어떻게 식량과 수백만 명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외부 투입재 없이 기후 변화에 제동을 걸고, 자주적 경영과 지역의 농산물 다양성과 지식 공유를 통해 이뤄진다.

생태농업은 또한 농촌 청년들이 농촌에 살면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분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먹거리 분배를 통해 존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

른 하나의 대안이다. 이들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주체들이다.  
지난 20년 동안 비아 캠페시나는 농지개혁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으며,  
2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이 실천들에 대한 평가를 되돌아볼 필요  
가 있다. 브라질 무토지 농민들이 "점령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를 외친 것  
과 같이, 전 세계 농민들은 이미 땅을 위해 투쟁하며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생태농업이 민중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규정한다. 지금은  
생산의 시대이다!

##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수산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포함한다.
2. “현지내보존”이란 농수산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지외보존”이란 농수산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6.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7.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는 토종농작물을 현지내 보존 및 현지의 보존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회의의 구성·기능) ① 민관정책협의회회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회의의 위원은 (도지사, 농업인 대표,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 된다.

④ 협의회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된다.

⑤ 협의회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회의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토종 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 구역에서 토종 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 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민의 토종 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9조(토종 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지원)

1.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토종재배계획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득보전 직접지불 신청) ① 농업인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산지가격이 도지사가 별도 지정한 기관의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일 때에는 산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이하 “직접지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 신청은 도지사가 2년간 평균가격을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직접지불 범위) ① 농업인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1,5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한 때에 한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차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할 수 있다.

② 직접지불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제14조(직접지불 대상결정) ①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박지은**

모심과살림연구소 초빙연구원 (2012)

서울대 사회학 석사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역임

제주 여성농민회 토종자원도감 자문

중기과제 보고서

**씨앗으로부터** : 생명의 씨앗이 순환하는 사회를 위하여

펴낸날 2013년 2월 28일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모심과살림연구소



증기과제 보고서

2012-R-03



모심과 살갭 연구소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문빌딩 5층  
02-6931-3604

<http://mosim.or.kr>



재생령이로 만든 책